朝鮮日報
夕刊
十八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廣東側形勢不利로 要人香港에避難

第二軍內部動搖、逃亡者續出

全面的으로戰線短縮

【香港十七日發同盟】廣東軍의 形勢가 漸漸 不利하다는 報道로 十六日부터 十七日까지 廣東側의 要人은 各列車 各汽船마다 數千名式 當地로 避難하고잇는데 其中에는 陳濟棠氏의 家族도 잇고 廣東市長 劉紀文氏도 廣東에서 逃亡하야 當地에 避難하엿다

【廣東十七日發同盟】韶關으로부터 英德에 第二線撤退命令을바든 第二軍의 內部에 俄然大動搖를 이르켜 師長及 旅長級에 逃亡者가續出하고 第六師의 一部는 十七日朝 第五師에게 武裝解除를 當하엿다 右는 前師長李漢魂氏의 策動에 依한것이라고 觀測되는데 動搖는 第四、第五의兩師에도 波及할 形勢인바 其推移는 重大視되여잇다

【香港十七日發同盟】陳濟棠氏는 廣東軍의 形勢가 去益不利하기 때문에 七日朝 中路第三軍에對하야 沾源 龍紋의第二線으로、그리고 前線에잇는 第四軍에 對하여도 第二線으로 撤退하라고 電命하고 廣東軍은 全面的으로 戰線의 短縮을 行하기로되엿다

中央軍廣西進擊

省境地方은戰時狀態

【廣東十七日發同盟】廣西軍當局에入한情報에依하면 顧祝同氏는 十六日貴陽에서 軍事會議를 開催하고 對廣西作戰에對하야 協議한結果 同日貴州獨山에잇는 郭思演軍第二軍에對하야 廣西省境에 進擊을命하는同時에 揚江一帶에잇는 萬耀煌軍 湖南의 龍德潛軍도 省境에 沿하야 前進行動을 이르켜 省境은 俄然戰時狀態에入하엿다 右中央軍의行動은 廣西軍의側面에 脅威를與하야 그湖南進出을 牽制할것은 明白하다

余漢謀氏韶關에入城

【廣東十七日發同盟】余漢謀氏는 十七日朝市民의 大歡迎裡에 韶關에 入城하야 舊第二軍司令部를占領하고 即時第四路總司令部及 廣東經濟公署를 設置하엿다 이에압서 十六日夜 分散中인第四師를 追擊하야 韶關을 占領한 余軍의 先鋒英德軍은 十七日未明 英德으로 向하엿다 그리고 樂昌을 占領한 中央軍先鋒은 十七日朝 韶關郊外에 達하야 左翼은 乳源을 占領하엿다 그리고 江西省南部龍川으로부터 十六日 廣東省境을 突破한 余軍別動隊는 十七日朝紫金에入城하엿다한다

第八十師大甫에入城

【廣東十七日發同盟】粵漢線峰市永定一帶에잇는 福建文軍의 第八十師는 十五日廣東省境을 突破하야 十六日새벽 大甫에入城하엿다 同軍은 汕頭를 攻略키爲하야 潮江을沿하야 南下하리라고觀測된다

廣東軍費調達次 紙幣大增發

【廣東十七日發同盟】陳濟棠氏는 焦眉의急을要할 軍費調達을 爲하야 廣東省、市兩銀行에 紙幣一億元의增發을行하고 其中五千萬元을印刷케하엿다 右에對하야國民政府 財政部는 十七日附로廣東市商會에 新規發行紙幣는 中央의法貨로 認定치안는다는旨를 指摘하엿슴으로 市民은 不安에싸여잇다

佛國罷業團의安息?

罷業은 이러고도平安한것이든가? 佛蘭西大罷業에 參加한 사마리텐백화점(빨고파을 포함)에서 한숨내리쉬이고 잇는光景

平和裡에廣東引渡

進擊停止를電請

陳濟棠氏緊急會議召集코決定

【香港十八日發同盟】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余漢謀氏는 十七日當報로서 陳濟棠氏에 對하야 十八日午前零時부터 二十四時間 以內에 廣州로부터 退出하라고 要請하엿다한다 一方 陳濟棠氏는 大勢이미不利한것을 看破하고 昨日正午 各將領을 召集하야 緊急會議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平和裡에廣東引渡』하기로 方針을決定하고 即時中央軍에게 進擊停止를 電請하는同時 第四軍第十二師長 陳漢光氏를 飛行機로 南雄에잇는 余漢謀氏에게 派遣하야 折衝을 進行하기로되엿는데 陳師長은 十七日午後二時半南雄에 到着하야 다시兩日中에余漢謀氏와함께 南昌에飛去하야 和平條件에對하야 蔣介石氏와協議하리라고 傳한다

廣東黨部中央에電請

【廣東十八日發同盟】廣東省黨部는 十七日夜中央政府에『西南側의 五項目의提案을 否決하고 政務執行機關의 撤廢를決意한 二中全會는 이미國民黨의 指導資格을 喪失하엿슴으로 中央政府는 速히 非常措置로 萬國最高機關을 設置하야 抗日의 實行과 賣國奴好官의 芟除에當하라는旨의 通電을發하엿다

海峽條約改訂會議 二十日에調印式

伊太利도新條約에參加

【몬트루十七日發同盟】土耳其代表아라스外相은 十七日午後 伊太利政府에 뇌네브駐在代表스코피氏를 訪問하고 會議의經過에 對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海峽制度에 關한 新條約案은 이미 作成되여 近近調印될터인데 新條約案에는 會議外의 各國政府가 將來에 參加할수 잇도록 餘地를남겨잇다 따라 伊太利政府도 될수잇는데로빨리新條約에 參加하기를 바란다 伊太利政府는 會議에 參加치 안은것을 理由로 當初에 參加하기를 꺼렷스나 結局 不遠한 將來에 新條約에 參加하기로 諒解가 成立되엿다한다 一方 뫁가리아代表는『侵略國』決定에 關한 條項을 主唱하엿스나 結局 修正을 要求치안코 原案대로 調印하는데 同意하엿다 따라 本會議는 二十日午後三時 調印式이 擧行될터이다

留保附參加

外相、佐藤代表에訓電

【東京電話同盟】몬트로海峽條約에 對한 日本의方針은 十七日關係各省協議會에서 最後的 態度를 決定하는데對하야 愼重考究하엿다 元來 로잔느條約에 加盟한것은 大戰後 極東日本이 歐洲에進出한 其意味를 條約上에 具現한것으로 日本의地步를 標榜한것인데 只今에 退去할必要가업고 將來에도 微妙한 國際條約에 참여하여둘이 必要한바 條約을 檢討하면 參加不參加 어느境遇에잇서서나 實質的 利害得失에 差異는업슴으로 차라리 日本의特殊地位를 明確히 留保하야 參加하자는 有田外相으로부터 大綱을 … 自然論이 …

會計年度變更의

曆年制採用

大藏當局도贊成

【東京電話同盟】議會制度調査會 …

倫敦으로變更!

로카르노條約國會議地

로會議後에國際會議開催를佛國政府同意

【巴里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는 英、佛、白三로카르노條約國會議 開催地인 브륫셀로부터 倫敦으로 變更할것을 佛白兩國政府에 申出하엿는데 佛國政府는 協議한結果 此를 受諾하기로決定하고 白耳義政府는 이미 受諾回答을 發하엿다한다 그리고 開催日은 二十三日頃이다

【巴里十七日發同盟】佛國政府는 로카르노會議에 繼續하야 國際會議를 開會하는데 同意하엿는데 同會議에는 獨伊兩國外 蘇聯邦政府及 小協商諸國全部를 招請할意向이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이會議가 決裂될境遇 從來의公約에 基하야 英國政府에 事實上 軍事同盟을 强迫하야 獨伊兩國을 連한 中南歐新聲明에 對抗할 方針이라한다

決裂時、英佛軍事同盟

로카르노會議主要議題

【倫敦十七日發同盟】英佛白三國政府는 來二十三日 倫敦에서 로카르노會議를 開催하기로 意見一致되엿는데 會議에는 英國代表로 볼드윈首相 이든外相 佛國政府로부터 뿔룸首相 델보스外相 白耳義政府 로부터반제랜首相이 出席할 豫定이다 會期는 前後二日間 豫定인데 主要한議題는 左와如하다

一、如何한 條件下에 如何한方法으로 獨伊兩國政府를 로카르노會議에 出席시킬는지 會議開催까지에 獨逸政府가 英國政府의 質疑覺書에 回答하면 議事는 크게促進될것이니 目下獨逸政府의回答을 期待할수 따라서 今回의會議는 左의 五個國會議의 準備에 不過하나 英國政府는 相互援助義務에 基한 新로카르노協定再建을主張할

一、로카르노新協制度建設 英國政府는 現在의 一方的保障制度에 不滿足한 相互援助義務는 수업다

佛白三國首相이 親히 懇談을 遂하는만콤 會議의意義는 深重할

布哇의眞珠灣에

强固한要塞築港

華府倫敦條約失効後에備코

布哇知事方針을言明

【紐育十八日發同盟】米國政府는 華府 倫敦兩海軍條約의 失効後에잇서서 新情勢에 備하기爲하야 太平洋上의 防備强化에 努力하고잇는데 特히太平洋上의 戰略基點 하와이群島에 今後六個年計畫으로 擴張할方針이다 하와이 빡리쓰를 擴張할方針이다 하와이知事 포인텍스타氏는 빌리필피아民主黨大會에 出席하엿다가 任地에 歸還하는途中 十七日紐育에서 左와如히 述하엿다

陸軍及海軍兩當局은 하와이眞珠灣의 要塞築港을 行하고잇다 今回에 또한 眞珠灣의防備强化에 對하야 … 膨大한豫算을 計上하야 陸軍及海軍兩當局은 하와이眞珠灣 附近의 空港地帶를 建設하야 一千九百萬弗을 必要하게될것이다 但 余는 將來 太平洋上에 平和의 紛爭이 이러나리라고는 決코 생각지안는다 하와이群島民이 日本과의 衝突을 念慮하는일은 全혀업다는것을 明言한다

提出된各省國策

十二年度分經費十億圓

【東京電話同盟】現內閣의 使命은 庶政一新을 實現할 國策案의 內容은 十七日 海軍 商工 文部 三省案이 全部提出되게되엿슴으로 玆에 全部모히게되엿다 따라 廣田首相은 먼저 三長官으로하여금 國策案의 內容을 檢討케하는 同時에 大藏事務局도 亦是 各案의 內容을 審査하야 馬場藏相에게 報告하고 右基礎調査의 終了를 待하야 閣議되어잇는 國防費에 關하야 首相 陸相 海相 藏相의 四相會議를 開催하고 根本方針을 定한後 所謂國策閣議를 開催하야 上등라도 八月 十日頃까지에는 國策案에對한 政府의 態度를 決定하기로 되엿는데 各省의 提出國策案을 示하면 左와如하야 昭和十二年度要求額만도 十億圓에 達하여잇다

▲外務省
一、經濟外交의確立案

一、通商機構의擴充案

▲內務省

一、地方財政調整交附金制度의確立

一、土木國策五個年計畫

一、保健國策

▲陸軍省

一、國防充實十二個年計畫

一、行政機構改革案

一、國民生活安定案

一、對滿國策確立案

▲海軍省

一、第三次補充計畫

主로 主力艦代艦과 補助艦艇의 建造及 航空兵力擴充

▲文部省

一、義務教育八年制案

▲司法省

一、判檢事의充實

一、司法官待遇是正

一、人事制刷新

一、法規整備施設

▲商工省

一、燃料國策

一、貿易行政機構改革

一、中小商業助成策

▲農林省

一、土地制度의改革

一、農村負債整理

一、災害共濟保險

一、農業土木十個年計畫

一、緬羊國策

▲遞信省

一、電力國策案

一、航空國策

一、海運國策

▲拓務省

一、移民二十個年計畫

全滿鐵道一元統制

方針具體化

來十月一日부터實施

【奉天十七日發同盟】滿鐵鐵道部及滿洲國鐵路總局의 鐵道機構一元統制問題는 마침내 具體化하게되여 關東軍交通監督部 滿鐵鐵道部 滿洲國鐵路總局의 各現地機關의 意見이 一致되여 目下渡東中인 松岡總裁 宇佐美鐵路總局長의 歸任을待하야 最後의 妥協을行하고 大體今年十月一日부터 實施할豫定인데 同案의 骨子는 左와如하다

一、鐵路總局과 滿鐵鐵道部를合併하고 此에 鐵道建設局及北朝鮮鐵道管理局을 合하야 全滿鐵道統制機關을 新設하고 鐵道建設事業及 事業의 綜合經營을行할

一、右統制機關은 奉天에 設置하고 其미테 滿鐵二鐵道事務所 國鐵五鐵路總局을 單位로 七鐵道局制로하고 鐵道建設局及 管理局은 解消할

一、滿鐵社員 鐵路總局員은 給與統制를 圖할

一、滿洲國國鐵의 特異性에 鑑하야 新機關設置後에는 滿鐵及國鐵의會計經理를 分離할 則 綜合事業經營의新原理를 基準으로 按分制를 採用하야 事務의簡涉과 經營의節約을 圖하는것이다

江原道開發會社

二十五日創立總會

【東京電話同盟】今回朝鮮電力의 子會社로 設立하기로된 朝鮮江原道開發事業會社(資本金一千萬圓)에서는 前總督府遞信局長 井上淸氏를社長으로 마지하기로決定하엿는데 同會社는 去十日同株式二十萬株中 東拓引受十五萬株의 拂込를終了하게되엿슴으로 마침내來廿五日 大阪빌딩大日本電力出張所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同社의 本社는 當分間 京城東拓支社內에 設置할터이라

人事·集會

▲安昌浩氏(釜山)十七日入京中央旅館投宿

▲劉相奎氏(京城醫學專門學校講師)十八日午前一時昭格町京城醫專病院에서 別世 護喪所 同病院內

▲原田大六氏(咸興稅務監督局稅務部長兼經理部長)新任人事次來社

▲堤平太郎氏(咸鏡南道地方課長)同上

▲佐藤道治氏(前晋州高等普通學校敎諭)鏡城公立農業學校敎諭로赴任人事次來社

八面鋒

◇ 內部의動搖로 廣東軍의 形勢 不利케되자 要人들은 續續香港으로 避難中이라고

◇ 防禦戰만한다는 主張도 抗爭한다는 態度와 맛먹지안는 우수운말이어니와

◇ 主力衝突도 되기前에 避難부터 하는이들의 反中央作戰은

◇ 鄧大昌 三十六計가 根本이든가? 모름이온 中國의 寶物!

◇ 降雨의不足으로 中部와 北部朝鮮에 旱魃被害!農作物도 목이말너죽을 地境이어니와 食水不足으로 斷水騷動演出!목마른 者에게비를

◇ 孤獨의發作으로 飮毒한女店員 이잇다 사랑업는者에게는 사랑의 보드러운손을!

最古의歷史 最大의技術 最新의製品 最高의實績 最峰의品質

朴家化粧品

各地朴家粉販賣店又는有名百貨店에有함

朴家粉白粉 ▲순후한特製로明朗한香氣를가지고잇슬뿐아니라廉價提供의目的

朴家クリーム 당신의살결을고유롭하게하며氣候에適合하게만든高級特製

朴家ヘチマ水 만점의香氣와 당신의살결에산뜻한氣分을주며더구나 모기빈대로레조코군버짐이나지안는

朴家コルト液 神士淑女는現代女性에게업지못할「호르몬製」

朴家水白粉 皮膚를保護하는士佐로化粧에업지못할

朴家ポマード 빤빤하게빤드하지안코 진득진득하지안하며 윤택하기로有名한 植物性製

▲其他各種이有함 全日本的으로 品質優良은勿論!! 目的하오니 더구나實費의本位를 最新製品을 現代的化粧品을愛用하십시요

京城府蓮池町二七番地 朴家化粧品本舖 電話光化門三三〇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綱緞布木都賣商 電話光化門七一五番 七一七番

—朝鮮料理—

天壽閣

眞景과藥水의 安靜寺後麓

京城府下往十里町

電本局四九一二番

선약을 분별하는길

여러 학생이 선생에게 대하야 「선생님 어떤것을 가르처 주십시오」하고 어떤것을 가르처 주시기 하고 어떤것을 「선악은 어떠하다는것이 만흔 학생이 다답하기를 「선악을 알고저하면 관계되는것이 만흔 선악을 살피어서 그러나 알수 잇는것이니 그리로 가서 차저 보라」하엿다 사람은 학문이나 교육보다도 다만 선악의 근원되는 마음은 도라가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하여 보기만 하면 무슨 일이던지 스스로 판단될것이다 그런즉 최악에 대한 구물 하는것 보다도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하면 선악을 밝히 분별할수 잇을것이다

創業明治二十八年

諸金物卸問屋

木手器具、建築金物、理髮器具、家庭金物

(同業者에限하야型錄送呈함)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直親切本舖 大野合名會社

高級別誂注文 品質은責任保證付

◇見本送呈(申込은大阪에)

二十圓부터 三十五圓까지 別誂注文合服折衿三揃

十八圓부터 三十圓까지 別誂注文夏服折衿上下

上衣七圓半·ズボン二圓半

外務員募集 申込은履歷書同封하야京城支店으로送附하시요

大阪市谷町一ノ一四 羅紗問屋 正司憲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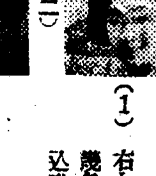
京城府櫻井町一ノ一八三〇 京城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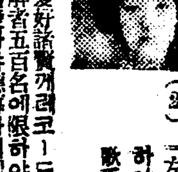
蓄音器界空前의會集

레코-드祭!

이萬眞은레코-드界에서가 장人氣잇는歌手입니다

누구일까요?





(一) 右上의寫眞은 〇〇〇〇〇의 娘「〇〇〇〇」로 賣出하야 數多의流行歌로有名한레코-드吹込歌手입니다 【答】勝 〇 郎

(二) 左上의寫眞은 天淵下에 넓히 알리워 하야 名曲流行歌로 斷然人氣잇는 名歌手입니까요? 【答】市 〇

훌륭한賞品의贈呈規定

今番蓄音器愛好諸賢께레코-드祭의 記念으로서 左의 規定에依하야 答案正解者五百名에限하야 高級포-타블 레코-드 一枚式贈呈합니다 應募하십시요

一、解答은 一人一答限으로 右의 文字를 記入하여 주십시오

二、解答은 封筒에 너허 返信封書로서(二錢切手四枚)를封入하야 주십시요

三、正解者多數의 境遇에는 抽籤法에 依하야 五百名을 選定하야 賞品한포-타블 一臺를 贈呈합니다

四、締切은 廣告揭載日로부터 十日間 以內로함

五、當選贈呈者에게는 締切後追加로 通知합니다

六、答案送付所 東京麴町飯田町二ノ二 大同工業商會宣傳部

五百名에게 贈呈할포-타블 (레코-드祭記念品) 一家가추어 新春의 歡樂으로 蓄音器로

(實物寫眞版)

品質 堅牢保證付 優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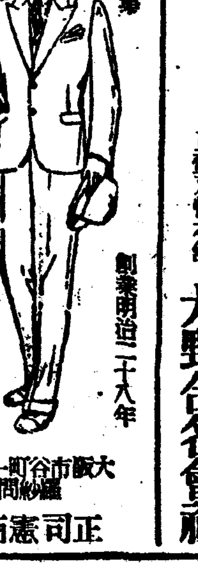
外裝·美·本革の 感じ レザー·モロッコ張 音質·明快にして柔軟 各蓄音機の 弊害を解消

◆高さ 八寸六分 ◆奥行 一尺三寸 ◆巾 一尺 ◆重量 一貫八百匁

●蓄音機に入れ全都の方へは 勝太郎·市丸·プロマイド·譜 流行唄全集·流行民謠集 二冊 贈呈!

¥28.00

贈呈蓄音器는鐵道便으로보내는故로最近驛名을記入하십시요



"詐欺師"의 曇天 北部降雨는 無望?

京畿地方中心의 昨夜降雨도 지내가는 비에 不過

京城測候所談

북부 조선에는 경급이를 어서 당장마 해결조여 진남포(鎭南浦)동지에는 음료수 부족으로 단수(斷水)소동이 일어나고잇다고보면 또 남부 조선에는 비가너무만히 와서 락동강(洛東江)이 삼켜며 를 이나 중수되야 강안도 처에 홍수란리가 일어나고잇서 하늘의고르지못함을 탄식하게한다 십칠일한밤중에 경성시내에는 줄기찬비가한참 동안 내렷는데 한재의북조선과 수재의 남조선의 절후상태를 경성측후소로들어보니 대략이래와갓다

십칠일 오후에 황해(黃海)남쪽에 나타난 저긔압(低氣壓)이 이날밤에는 북동(北東)으로 나아가서 십칠일아침에는 경상남도(慶南)근해에 이르러 조선중부이남의 긔류는 자못불안정하게되자 경긔도이남의 남조선에 뻐치서삼십미리로부터 백미리의 비가내렷다 이리하야 조선남동부지방은 그전내리던비와 아울러 홍수소동을 이루게까지 되것인데 서울에만 비가오고 북조선에는 그대로 흐렷다 동섬에는 일반으로흐리고 곳곳에 잠우(霧雨)가잇는곳도잇는데 중부 조선에잇던 저긔압이 일본해로 빠저버려서 이번비도 이것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날이들모양이며 아직 가대서는 북조선에 비올기미가업다 십칠일밤부터의강수량은 다음과갓다

京城 一五미리 仁川 二二
全州 七 木浦 三〇
大邱 二〇 江陵 二五
濟州島 一五

慶全兩道水害續出

濁流中에 二名溺死 處處에 鐵路故障

列車延着으로 釜山棧橋混雜

【釜山】 경남일대를 엄습한 호우(豪雨)로 말미아마 각처에서피해가 속출하얏다함은 긔보한바인데 이호우는 다행히십칠일오후부터 점점우량이감소되어 십칠일오전 삼시경에끈처서쾌청하야젓다 그런데 이호우로 십육일 오후 칠시경밀양군하남면 수산수리조합(密陽郡下南面守山水利組合) 저수지배수문옆에서 방수공사를 하다가그동리박모(朴某)(三〇)가 익사하얏고 도통영군 산양면(統營郡山陽面) 사는김태규(金太奎)(三〇)가동면내를 흘러내려가는 시내물을 건너가다가 익사하얏다 한다 그리고 경부선(京釜線)김장(金丈)사방(土方)간대구(大邱)긔점 칠십팔키로 오백미돌지점부근 축제(築堤)가 약사십팔방미돌 붕괴하얏고 삼랑진(三浪津) 밀양(密陽)간 부산긔점 오십사키로부근 축제(築堤)가 약칠십입방미돌 붕괴하얏고 귀포(龜浦)물금(勿禁)간 부산긔점 이십칠키로 삼백미돌 지점에서 동사백이십오키로간이 약삼십센치가량 침하(沈下)하얏고 물금(勿禁)원동(院洞)간부산긔점사십일키로팔백미돌지점에서 동사십이키로 백미돌간이 약삼십센치가 침하(沈下)하얏다한다 이런관계로 십칠일 오전구시사십분 부산착제오렬차급 동십시오십분 부산착하까리항렬차는 각각 이십오분식연착하야서 부산잔교는 대혼잡을 이루엇다

친 전답도 부소 하다는바 아직도 폭우는 계속되고 잇서서 일반농가에서는 거정을마지아니하며 황룡강(黃龍江)과 극락강 … 한다

(洛東江)락동강의홍수는 일분후다 루어 중수되는중이라고한다

東村, 半夜月間線路流失

요사이 남조선방면에서 내리는 호우로 말미아마 각지의 피해가 속출하고잇는중 십칠일밤 대구(大邱)부근에도 소낙비가 퍼부어서 곳곳마다 수해가 적지아니한다 이때문에동촌―반야월(東村, 半夜月)사이 대구지점 아홉「키로」오백미돌이 류실되여 잇는것을 십칠일 새벽네시에 이르러서야 발견하고 곳수리에 착수한결과 네시간만인 오전 여덟시나 되여 복구되엿다 이까닭에 대구를떠나 포항(浦項)으로 가는 제일적구배이십일호 렬차는 두시간 가른이백륙십일호렬차는 한시간식이나 각각 지체되엿다 한다

安東北門通의 洛東江堤防危險

水防團非常召集活動

【安東支局電話】 십칠일부터 안동에는 호우가내려 어젯시에는 하천이범람하야 북문통(北門通)이 위험에 빠저슴으로 비상경적을 울려수방단을 소집한후 활동중이다 그리고 여전히대는 침수가되어 피란민들은 가장집물을 운반하고잇고 공사중의 락동강제방은 안심할수가업서 인심이불안하다

慶北

各地自動車線路 十三個所에 異狀

東村峨洋假橋는 流失

【大邱】 삼사일전부터연일내리고잇는 호우는 도내각지의 하천이 중수하야 교통은 일시두절상태에 빠저 잇섯는데 십칠일에잇서서는 비가개엿다 그리고 십칠일경북경찰부에 달한 보고에의한 자동차선사고를 종합하면 아래와 갓다고한다

▲大邱浦項間=大邱府外琴湖江五樹洞用增水交通杜絶
▲大邱慶山間=孤山面無名川增水交通杜絶
▲慶州蔚山間=月山川增水交通杜絶
▲慶州甘浦間=杜絶
▲浦項盈德間=松羅川增水杜絶
▲義城青松間=來吉川增水杜絶
▲青松英陽間=來吉川增水杜絶
▲高靈星州間=大伽川增水杜絶
▲義城河陽間=杜絶
▲安東禮泉間=平退川增水杜絶
▲義城和睦間=杜絶
▲義城永川間=義城王山間杜絶

그리고십칠일 제이차 경북경찰부에달한 보고에의하면 예안(禮安)관하의당포(?)간(洛東江)은 오전십시의 수위(水位)는 이메돌십오이든것이 십센치가 강소하엿다한다 도통금강(錦江)의 시경 수위는 사미돌이바 아양

松汀面浸水

【松汀】 귀보=약일개월전부터장마는 계속하여오든바 지난십륙일부터 폭우가쉬지안코 쏘다지기시작하야 아직도 계속중인바 홍수로말미암아 광주군평동면과 송정면을 통행하는 교량이침수되여 일체통행이 끈허젓고 송정면신촌리(松汀面新村里)주민의 가옥도 침수가잇다하며 늣게야 비로서 어렴게심은 전답곡물을 이번홍수에 일케될것이 적지안타고하며 현재홍수속에 못

金時計窃盜犯

십팔일 시내종로서사법게에는황해도동산(鳳山)출생의 김종선(金宗善)(二)이라는 소년절도가 붓들려와서 취조를받고잇는데 그는시내 본정(本町)이정목 어떤 시계점에서 시가팔십원의 금시계를 훔친것을 비롯하야 시내 각처에서 수십차레나 귀중품을 훔첫는데 그는 일긔장을 맨드러가지고 날마다 훔친 금품을 소상하게 손것이잇섯는데 일긔장에 구체적으로 구십구원이라고 적혀잇는것이 무엇이냐고를 어쩌니 일긔만피하면 마련이되 질문 해보겟다는 계획이엿다고 는것으로 자긔가 그마른 도적 테연스럽게 대답하는것에 대하야는 취조하든 경관도 놀낫슬 금할수업섯다고한다

全南各地의 交通

豪雨暴注로 杜絶

道路의 決潰로 自動車線不通 南海岸一帶가 尤甚

【光州】 전라남도일대에는 십삼일부터 비가계속하야내려서 십오일경에 이르러 폭우로쏘다저 전남도내서도 남해안일대에는 침수와도로의결궤등으로교통이두절되얏다는데 십칠일조에전남도보안과에 도착한각지보고를 보건대 순천광양(順天―光陽)간과 해남우수영(海南―右水營)간 강진흥당포(康津―興當浦)간 곡성남원(谷城―南原)간등이 금번 수해로인하야 교통이두절되얏는바 전기각도로교통이회복되기까지는 아직도수일이잇슨후 복구공사를요하게되얏다한다

浸水五百餘戶

統營에 稀有의 豪雨

【統營】 통영은 오래동안비가나리여 시민에게 너무지리하게도 불안을계속하든중 지난십칠일 오후오시십분경부터 이십분동안 너무급속도로나리는 폭우로말미아마 시내일대는 십여년이래처음보는 일대오조이라는 대우량으로서 침수가옥이 오백호이상이바 더욱피해를많이받든곳은 시장일대 상점여상점과 정량리 일대의 시가지라하며 인축에는 별피해는 업섯다한다

勞働者, 店員中心의 赤色組織體가 綻露

西署事件의 全貌判明

시내 서대문서 고등계의 적동(佐藤)부장이 지난달 개성(開城)방면에 출동하야 국경방면에서 돌아온것이 우모(禹某)등을 검거하여 취조중이라는사실은 당시보지에 루보되엿거니와 동서고등계에서는 그후 모처의 련락으로 일시취조를중지하고잇섯는데 그후 전긔두정변의 취조를진행한예방아 그들이 표방하든 운동은 전연시실부근이고 그들은 전조선각지의 로동자 점원등과 련락을 취하야 적색(赤色)로동조합의지하운동을 피하든것이 탄로되는동시에 시내 모처에서 리상우(李相雨)(三)류광호(柳光浩)등 청년사, 오명을 검거하고 이래 잔류부장이 주로취조를 진행하여 오든바 사건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이사건도 관계자전부를 취조함에따라 점차 그들의 조직 계통이 확연하여지는 모양으로 십오일 부산(釜山)모상점에서 김삼룡(金三龍)(假名)(二)이라는 청년을 압래하고 방금 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이 조직한 ××관계자는 상당히 만흘수에 달할모양으로 검거망이 점차 퍼지는만치 이사건은 상당히 주목되고잇다 한다

楚山對岸人民○○軍 朝鮮侵入을計畫

到處에서警官隊와衝突交火

십칠일 평북초산경찰서관내(楚山警察署內)주재소대안 관전현 전자구초토지대(寬甸縣子溝村土地帶)에무장한 조선인○○군 제이중대장김창화(金昌和)이하시칠명이 나타나 조선측에 침입하려하엿스나 경계엄중하야 목적을달지못하고 곳 상류백례(白衆)지방으로 향하엿는데 그중십명은 십칠일아침팔시경 다시전긔토지대에이동하야 중해자를급지하고 『프로페라』선을습격하려고계획중이라는 정보를받고 경찰에서는 경계중

一, 용암포재소이천(二川)부장이하십명이 동소중리(中里)감시소내에 상류로올라가는 『프로페라』선을경계중 오전팔시경 돌연 그들 십명은 경관대에 향하야 발포함으로 공응전하야 약오십분만에 격퇴식혓고

二, 도그곳 련담(蓮潭)감시소의 전(貞)순사는 그곳호관리(虎關里)감시소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프로페라』선을 경계중 오전구시십오분 준환(隼丸)이 하류약오백미돌에서 상류로올라오는것을 돌연경계원을『모리』총으로 맹렬히발사한 네명을 발견하고 공응전하야일단을 격퇴식히엇다

部落民四百餘名과 船夫側卄餘名 流血의亂鬪劇

大同江上初伏노리의不祥事

雙方重輕傷者十五名

【平壤支局電話】 십칠일은 초복(初伏)날이라 평양부근에는 감음이계속되여 오는중이어서 대동강(大同江)상에는 복노리배들이 질편하게 떠잇게되엿는데 이날오후일곱시반경에 대동군대동강면선교리(大同郡大同江面船橋里)에잇는 평양선원보통조합(平壤船員普通組合)배 이룡환(二龍丸)에 김주헌(金柱鉉)(三〇)외세 명의선부가 (遊覽時)(三)외세 명의손님을 태우고 대동강하류 도산(島山)으로향하야 가면도중 고평면평천리(古平面平川里) 병긔제조소(兵器製造所)압에서 배를머무르고 노래를 부르고잇는것을 강가에 놀든 김양문(金陽文)(二五)외 세명의 소년들이 배에다 돌을던저 선부들의 취흥을 깨트렷다고하야 선부들이 소년을 구타하자 부락민수십명이 내달아서 선부를 차우다가 경관에게 해산을 당하엿다 일단 몰려간 선부들이 다시 그조합본부에 전화로서 응원을 청하자 오후아홉시사십분경에 끈동를른 선부이십여명이 자동차를타고 현장에 달려와서 다시금 부락민 사백여명과 일대란투를 시작하야 이틈에 부락민 김기섭(金錤涉)(三)현학모(玄學模)(三)로룡삼(盧龍三)(三)는 중상을 입고 그외에 다섯명의 경상자를 내엿스며 선부측에도 일곱명의 중경상자를 내고 급거출동한 평양경찰서원의 진압으로 겨우 해산되엿는데 부락민에는 전긔 병긔제조소의 직공들이 만허 단도가진 수십명의 선부들이 다시금 소란을 이르켜 경찰은 주동자를 취조하는한편 헌대의 출동까지 보앗다 그리고 중상자는 방금평양도립병원에 수용하야 응급치료중이다

土兵團이出現

朝鮮人十六名拉去

【警務局着電】 십칠일경무국에달한 정보에의하면 북만주 목릉(穆稜)의남방면 아일방리의 조선농부락 삼차구(三岔口)에지난 아홉째날 삼십여명의토병이 나타나서 동지조선인 십삼명과 만주인삼명을 붓잡아가고 말세마리와 소두마리를빼앗고 자위단사무소와 서당에방화하야 전소케하고어디로인지도주하여버렷다 이급보에의하야 구원대가출동하얏는데 그이튿날에 조선인열두명과 만주인세명은 도라왓다 한다

米洲留學中이든 李惟敬孃이歸國

일즉이 평양(平壤)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를 졸업하고 일본체조학교(日本體操學校)를 거처 일천구백삼십이년이월 미주(米洲)에 건너가서 『일리노이스』주 『웨슬레얀』대학 교육과가 사과에 드러가 이래 영설의공을쌓고잇든 평안남도 태생 리유경(李惟敬)양은 작년에 그학교를 졸업하고 지난십삼일에 귀국하엿는데 방금 시내 돈암정(敦岩町)이백륙십칠번지에 우거하고 잇다한다

좀도적

【全北】 정읍군태인면(井邑郡泰仁面) 주소가 일정치못한 전과삼범 문홍봉(文洪鳳)(二五)은 수일전부터 본정서에서 취조를받고잇는데 그는 사월이래 시내 고물상으로 도라다니며 『사이다』병만 훔치고 다니엿다하는데 피해액은 약이십건가량이라한다

天氣予報

豫報 오늘은 京城地方은 흐리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흐리다

概況 七六三미리의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으로부터 朝鮮에퍼지고잇스며 滿洲方面은 氣壓이얏다 滿洲는 맑고 朝鮮은大體로 흐리고잇스며 北東岸에는 降雨가잇다 琉球諸島는흐리며 關西地方은 맑고 東北地方은 흐리고잇다

昨日最高 二六度一
同最低 二一度五
今朝最低 二〇度九
今日正午 二六度二

軟式野球二回戰對陣

全朝鮮軟式野球聯盟主催의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京城豫選第一回戰은 十六日로서 終了하고 十八日부터는 다음과가튼 對陣에 依하야 龍山球場에서第二回戰이 開始되엿다

▲十八日=朝運支店對電車課(後一時) 專賣支局對朝俱(後二時) 鐵道經理對三中井(後四時) 京城工場對遞和(午後五時半)
▲十九日=商銀對貯銀(正午) 善友對靜和(後一時半) 全總府對FD(後三時) 映畵人對京龍(後四時半) (以上全部龍山球場)

東京巨人軍來征

東京職業野球巨人軍은 京日招聘으로 京城에 來征하기로되엿다 一行은 來卅日 專務 市岡氏引率下에 入京하야 卅一日과 八月一日 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在京팀과 對戰키로 되엿다

京平水上對抗

平壤代表豫選會

【平壤】 八月十六日 午後一時부터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京城水泳同友會와 平壤水童俱樂部와의 第一回 京平對抗戰을 平壤公設풀에서 開催하기로 되엿다함은 旣報와갓거니와 平壤水童俱樂部에서는 記錄會를 十九日 午後一時부터 公設풀에서 開催하기로되엿다. 이記錄會의 結果를보아 對抗戰에 出場할 『멤버』가 決定될터이다.

運動競技

마라손優勝者에 "헬멧트"寄贈

西曆六百年前製品

【아테네十七日發同盟】 希臘의 最大新聞 『브라데이니』紙社長 『아라멘데이노스』氏는 이번伯林올림픽大會의 마라손優勝者에게同氏가 秘藏하여오든 西曆六百年前 올림피아 聖所附近에서 發見한 『코린트』時代의희랍토인 『헬멧트』를 寄贈할뜻을 發表하엿다

萬人待望의 端宗哀史 上演
十五日부터東洋劇場에서 … (告廣)

『蔘茸トニク』 蔘茸토닉

萬病의 効力이 잇는 『홀몬』과 各種 『비타민』은 完全히 血液으로

學者의研究와 興味의中心이 되여잇는 鹿茸 人蔘 等의 諸元素는 『蔘茸トニク』에限하야 完全히 飽和되여잇읍니다 從來의 治療效果及廣告主義의 弱點은 … 時代의 要求에應하야 … 『蔘茸トニク』 …

本劑를推獎하신諸先生

定價 (五百瓦入) (二百五十瓦入)

各百貨店及有名藥店에잇읍니다

發賣元 京城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丸善テント商会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八〇 (カタログ進呈)

코흘니개와 코맥히는 治療方秘訣 申込次第無料로送呈함 東京市芝區佐久間町二ノ二 申込所 確報堂藥品部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平和堂 京城堅志町 一劑十円

I-KATOL キカトール

納凉氣分振溢한 朝鮮料理 賞春園
雜沓한都會를떠나 山水와凉風의 佳境을차저東小門外로!
東小門外貞陵 電光二六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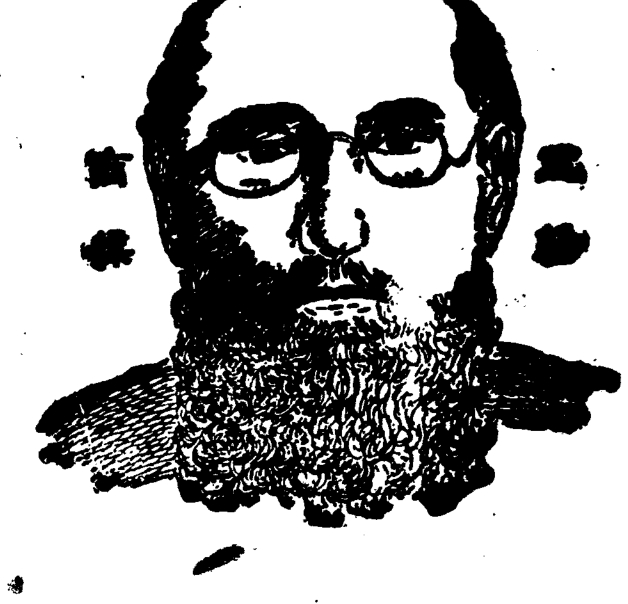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3二〇番
七月十五日부터晝夜 青春座公演(第二週) 演劇界의 一大福音! 朝鮮演劇史上의金字塔 崔獨鵑先生脚色 大悲劇 端宗哀史 十五幕十七場 (一夜前後篇全部上演)
次週豫告 李光洙先生原作 再生 三幕五場
青春座員總動員 登場人物百餘名

포리도-루레코-드 8月新譜
流行歌 님 마지 鮮于一扇 / 平壤에밤비올제 鮮于一扇 (19321)
流行歌 사랑의 봄이 운다 白石汀 / 青春旅路 琴石雅 (19322)
流行歌 洞里압 수양버들 全玉 / 꿈에도 故鄕生覺 尹鍵榮 (19323)
재즈송 人生打鈴 金龍煥 / 집시-合唱 리갈보이스 (19324)
俗謠 오돌독 明月 郡山月 / 四節歌 明月 郡山月 (19325)
映畵說明 봄 소나비 朴昌遠 (19326)
瀟湘八景 林素香 / 天途 林素香 (19327)
南道雜歌 農夫歌 吳太石 丁南希 外 (19328)
新民謠 布穀鳥 / 마즈막 아리랑 王壽福 (19320)

엇재서大學目藥이世界에第一인目藥일까?

그까닭을말슴하야드리지요



第一 大學目藥原料中에 專賣特許인「올비오레긴」이 配合되야잇습니다。이것은 世界의어느目藥으로도 追隨치못할것입니다。

第二 그런結果大學目藥은 모든眼疾에神効잇는治病作用과 눈을깨끗이하고아름답게하는 美眼作用과 눈에有害한 紫外光線을防止하는紫外光線防止作用等 三作用을一時에나타내는것입니다。한가지藥으로 三作用을兼하야、眼科藥으로서 理想을實現한 目藥은、모든目藥中에서도、우리大學目藥이 잇슬뿐입니다。

第三 그리고、大學目藥은、압흐거나、쓰리지안코、氣分좃케有効한것이 자랑할만한 特長입니다。「氣分조코愉快하게眼疾을治療한다」는것이 他藥의 追隨不能하는大學目藥의 特長인同時에、藥質은아모리오래두어도變質되거나 腐敗치안어서、어느때나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것이、大學目藥의 世界的으로 信用을엇는 理由입니다。

第四 다시、大學目藥에는一瓶마다、大學洗眼藥이라는、눈을씻는藥이添付해잇습니다。眼疾을速治하랴면、눈을씻고 目藥을눗는것이조흔것은、누구나 다아는바인대 目藥에洗眼藥까지 添付된 親切한目藥은大學目藥 以外에 는업습니다。그뿐아니라、大學洗眼藥은 世界一인산데―뿌衛生包裝을하야 가장淸潔히包裝되야잇슴으로、누구나 大學目藥의 周到한데는 賞歎치안는이가업습니다。

第五 大學目藥에는、十歲以下어린이를爲하야 特製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學理와 經驗에依하야、어린이눈에맛도록製劑한 小兒用大學目藥이 世上父母된이들에게 絶大한信用을 밧는것도當然입니다。

第六 最後로、點眼容器와 人造鼈甲케ー스에對하야 한마듸말슴하게습니다 大學目藥의 容器는 新案特許의 自働點眼容器입니다 이容器는、그대로 自働式의點眼器로서 便利한것으로、上部의 고무를손으로 누르면 一滴도 허실되지안음으로 第一經濟的이며 衛生的입니다。이點眼容器는、너머지거나、것구러저도目藥이 쏘다질 念慮가업슴으로、携帶하기에데 便利한다가 더一層携帶하기便利하도록 近代的 美裝을다하야、發明한것이、人造鼈甲케ー스입니다。

人造鼈甲케ー스는、조곰도 롤이지안는、美術工藝의 粹을다한優美高尙하고 便利한케ー스로는勿論、따른케ー스로서도아직다서업는 훌륭한것이라고 評判좃습니다 願컨대、여러분도每日아침起寢하시거든 잇지마시고、大學目藥을點眼하십시요、그리고 外出하실때에도、반드시포ー케트에 넛코단이시다가、생각나시는대로 點眼하십시요。

여러분눈은어느때나 아름답고 永久하게 健康하실것입니다。

朝起後에 大學目藥을點眼하면其爽快한心神

눈은더욱 健康케되고‧眼疾은곳治療됨‧大學目藥은 片時不離할나의寶貝옙니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 龍藏氏
醫學博士 吉田 義治氏
醫學博士 山中 嶽之氏
醫學博士 豊田 正運氏
推奬

適應症

○血目 ○[illegible]目 ○[illegible]안질 ○쑤시는눈
○疲勞眼 ○打目 ○爛目 ○鳥目
○다락기 ○상한눈 ○淚眼 ○흐린눈
○麥粒腫 ○삼눈 ○도라홈 ○光線眼炎
○結膜炎 ○전안질

大學目藥은 効力第一로 世界에 所聞난 눈藥의 大王이요 그 効能의 優秀함은 有名한 眼科專門의 五大醫學博士가 一齊히 推奬한것만 보와도 分明한데다가 世上사람들이『第一 조흔 눈藥이다』라고 爭先愛用하야 大學目藥이 世界 目藥中에서 第一 信用이 잇고 第一 잘 팔리는것으로 보아 알수 잇습니다 이러케 훌륭한 目藥이 日本에서 製造 發賣되는것은 我國醫學界의 世界的 名譽라고 하겟습니다

人造鼈甲케ー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ー스는一個)	五十錢
補充用 特大瓶付(圖)	一圓

케ー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東區北濱一丁目
製造本舖 參天堂株式會社

動物愛護談 (7)

오리, 닭, 고양이의 두목인 솔개 (二)

崔秉和

「오 잘도라왓다」 아버지께서는 친아들이나 돌아온거나 다름업시 그솔개를 품에 안으시엿습니다.

우리집에는 오리도잇고 닭도잇엇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잇엇습니다. 그것은 모다 아버지께서 길르시는것이엿습니다.

이솔개는 며칠안가서 오리 닭 고양이들하고도 사귀게 되엿습니다. 즉 아이와 아이들이 동무가 되는것처럼.

그리고 어느때는 우리집압 연못에서 솔개와오리가 노는것을 볼수잇게되엿습니다. 오리새기도 틈사이에 끼여잇섯습니다. 서로 밝거나 떼밀거나 하는일이업시 이상스럽게 생각하리만치 정다웟습니다.

해간이해서 고양이와 소리개가 나란히안저서 따뜻한해볕을 조이고잇는것도 감금보엿습니다. 네마리고양이가 두러누운 그한가운데에 솔개는 웃둑서잇섯습니다. 고양이와솔개는 한가하게 눈을감고 졸고잇섯습니다.

어느때는 이런일이잇섯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양이들에게고기를 던저주시엿습니다. 그러면 그네마리 고양이중에서도 제일날센놈이 몬저뛰어가서고기를물고 다른길로 달아납니다. 나중엔네마리도 뒤를좃차갑니다.

이것을본것은 나무가지에 안즌 솔개입니다. 보자마자 잡날더니 나려와서 먼저뛰여가는 고양이잔등어리에가안즐니다. 그리고 두다리발톱으로 잔뜩 움켜쥐며 주둥이로 귀바퀴를 쪼읍니다. 고양이는곤란 아르고괴로워서 야옹! 하고 울면 고기는 땅바닥에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번재고양이가 뛰여와서 그고기를물고 달아납니다. 그것을본 솔개는 두번재고양이 잔등이로 옮겨안습니다. 그리고 두다리발톱으로 잔뜩 움켜쥐며 주둥이로 귀바퀴를쪼읍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지르면서 또 고기를 땅에다 떠러트립니다. 세번째 고양이도 그러케하고 네번째고양이도 그러케 합니다. 이번에는 개가 고기를무는대신에 솔개가 고기를낚고 훨훨 나무가지우로 날너올나 가버렷습니다.

네마리고양이는 아무도 울게가 큰 귀가 아퍼서 귀를 흔들면서 잣잣으로 쭈푸리고안젓습니다.

솔개는 갑갑가다가 이러한 심술시나운일도 하엿습니다. 그러나 그동무들이 위험한일이잇거나 어려운일이 생기거나하면 으레히 앞장을서서 동무들을지키고 동무들을위하야 차호기도하엿습니다.

병아리와 고양이새끼가 큰 어미개를 떠나서 제자 박그로 나가놉니다. 그러서 다른 무서운새나 짐생에게 죽김을 당하는일이잇습니다. 그러면 병아리와 고양이새끼는 놀나서 부르지즈면서 살려달나고 슬피울고잇습니다. 이소리를 드른 어미들도 놀라서 요란스럽게 소리를지르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솔개는 두날개를 활작펴고 소리나는쪽으로 살가티 날러갑니다. 눈을크게뜨고 주둥이를 벌리고 발톱을펴들어서 덤벼드는 모양은꼭 모라 훗이나서 도라는것갓습니다. 크고 사나운개에게도 떼싸툼 개를무러가게하엿습니다.

그래서 솔개와가티 잇스면 오리도 닭도 고양이도 마음을놋코 무어이든지 돌아다니지 안엇습니다.

「저놈은 오리와닭과 고양이의 두목인데다」

아버지는 솔개이야기를 다른사람에게 하실때는 이러케 자랑하시엿습니다.

(第七話完)

家庭

반찬 귀한요새 세가나는 새우젓

본바닥에서는 어더케담는가 이것도 아라두면참고된다

江華 琴貞淑氏談

우리가 상에 둘너안저서 밥을 먹으랴고 할때는 누구나 먼저 밥보다도 입에 마질찬이 엇나 업나를 살피게되고 보기만해도 구미가도는 포기김치라든지 깍둑이 갓은것는저 업는지 찻게됩니다.

혹여 친구집에 초대를 바더서 음식을 자시고 돌아와서는 의례히 그집 좋김치는 잘담엇든데 그대 깍둑이 맛이 절하얏미든데하시는 말삼은 가정주부되분으로는 누구가 자금 드르셧슬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대에서는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한는데하필 김치 깍둑이만으로 대접햇슬리는업슬것입니다만은 이는 오로지 진수성찬이 버러젓다해도 우리네에게는 김치 깍둑이가 업고보면 음식상다운상이 되지못하기때문입니다. 또따라서 그집 주부의 솜씨를 남에게 알리우는것이므로 항상 먹는 김치 깍둑이거니하고 주의를 엿기쉬운일이나 가정주부되분으로는 항상 이김치와 깍둑이를 잘담어야 한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입니다. 당장 서울시내의 어떤사람은 그가 김치를가지고 출세를 하얏다는 이야기까지잇지안습니까.

그러면 이김치나 깍둑이를 맛잇게 담는데는 주부의 솜씨도 솜씨지만 먼저 김치 깍둑이를 맛잇게 하는 새우젓을 잘 선택할줄 알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새우젓에는멧가지나잇는가? 여기에대해서 먼저 말슴하겟습니다. 음력으로 요새잡는 『오젓』이라는것이잇고 가을철에잡는『추젓』이잇고 유월에잡는『륙젓』이라는것이잇습니다. 이밧게도 치운겨울에잡는 『동백하젓(冬白蝦)』이라는 것이 잇습니다.

—오젓—

요새잡는 오젓이라는 새우는 작년겨울이후로부터 자라난 새우라 몸이 좋연하고 철이그리 몹시 떠울지도안코 그리 서늘하지도안흔시긔의것이라 새우젓가온데서 맛이 조키로는 제일입니다. 그리하야 김장에 소용되는 새우젓은『오젓』에한합니다. 그밧겟것으로 김장을 담는다면 김치나 깍둑이가 거시고 쓴맛이 납니다만은 이『오젓』으로 담으면 단맛이 납니다. 더욱 더 리상적(理想的)으로 집장을담자면 오젓을 금년에 담어두엇다가 래년 김장때에 쓰면 그동안 새우젓이 폭 삭아서 더욱 진미를 내게된답니다. 그러고 이오젓은 바다 에서 잡는데로 곳 젓을 담는데 담는방법은 큰 독에다가 새우를 넛코 다음에 호염을 너어서 범으려서는 독에다 넛는데 한께니곤는 손으로 차근차근 눌느고 너코한후 맨우에다가는 다시 소곰을 업저둡니다. 그런데 호염은 대개 새우한말에 호염 되가웃(一升五合)가량식을 너어두려 독에다, 너어둡니다. 이에 더욱 주의 하지안흐면 안될것은 조곰안치라도 부주의로 인하야 몰시발이 떠러진다던지 하면 그만 구더기가 생기여 못쓰게됨으로 우리가정에 서라도 새우젓을 독으로 사들여서 먹을때는 항상 묵겨두고 주의하지 안으면 안됩니다. 그러고 이오젓은 집장소용 이외에 새우젓으로만 먹자는데는 너무도 연하기때문에그리합당하지는 못합니다.

—륙젓—

『륙젓』은 음력으로 류월에 잡는데 이 새우는오몸이 딴딴하고 거시여서맛으로나 또는 집장소용으로는 부적당합니다. 그러키때문에 이 륙젓은 순전히고초가루와 초(단것)와 깨소금에다 기름을 처서 여름밥상에 오르는것 입니다. 몸이 단단한 관게로 젓갈부치로 또한 여름 찬어슬때에 구미를 돕는데는 또한 조흔찬거리입니다. 농촌에서 한참바뿐 여름철에일우 찬을 만들어 먹을수는업고 한때는 이육젓에다양념만 처서 먹는분들이만습니다. 그리기에 여름철 농가에서의새우젓광다이에 버리밥이란 과연 도시(都市)에서는분들로는 일즉이 이진미(眞味)를 알기 어려울것입니다. "륙젓"을 담는법은 오젓이나 갓습니다 다만 철이 오젓때보다는 더운때라 간을좀더하야새우한말에 소금두되는저야하고 옷소금을 조금더칩니다.

—추젓—

가을철에 들어서 잡는새우로젓을 담는것이 『추젓』합니다. 이추젓은퍽연합니다. 그것은 시긔가 바뀌이는 시긔라여름동안 알친곳에서새로 부화하야 난것이므로퍽 신품(新品)입니다. 이것도오젓과 비등하나 오젓보다도 더 단맛이 나고 또 제일 륙색은 다른 새우보다도정갈스러운것이 륙색입니다. 또 때가 가을이라 젓갈부치로도 한맛을 더합니다. 추젓을 담는 법은 오젓을 담는것과 도가틉니다. 그러나 이 추젓은 집장소용으로 만히 쓰지안흐면 집장담는 귀한이밖두해서 잡는 것이므로 어느정도까지 삭지도 안헛슬뿐만 아니라완전한 새우맛을 발효치못하는 관게입니다.

그다음으로 젓은 아니담으나 겨울에 한이채를 보이는 동백하(冬白蝦)는 어름을 깨치고 잡는 새우입니다 희기가 백설가티 깨끗한것으로 초나조금치고 고추가루에 기름방울이나 떠우려서 상에 놋코보면과연 주객의 비위를도도고 맙니다。도회지에서 먹어도 별미랍니다。

이상말씀한것과가티 새우젓은 우리의 주부의 필요한것이라 할 경험입니다。매개 우리네집에 사드리는 새우젓에는 자사군들이 만은것이라 이 악한것이 잇습니다。이 소곰을 먹기는하구 좀 간것을 잘 주의하사 간이 약한것에는 한독에 얼마으로 가량의 소곰을 더 언저서 될수잇는대로 손 멀라는 찬광 한여 프로 뚜고 찬소용할때마다 손질을해서 꼭꼭 눌러두시도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밧게도 건하(乾蝦)만드는 이야기도 잇스나 다음으로 밀우고 이만둡니다。

사진은 새우젓담는광경

어린애변비에는 실과집이 약

여간한경우가아니면 관장은절대말일

더위에 못이기고 어머니의젖을 너무먹어 변비가되어 변채는애가 요새만습니다 그런데 어린애기의 변비에 대해서는 애기 기르는분이 불주의해서 돌보지 안흐면 안됩니다.

갓난애기적에는 하로에 사오차례뒤를보고 달이가서 커갈수록 두서너번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때 하로온종일뒤를 못보앗다거나 뒤보는 회수는 여전하나 누는분량이적다거나 한때는벌서 변비된것으로 볼하게 업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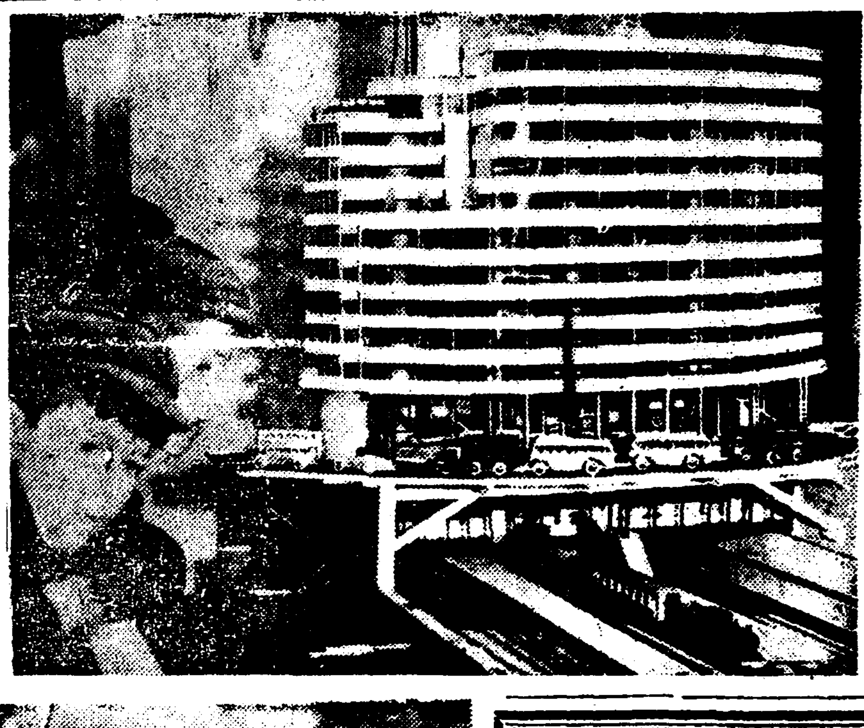
애기들의 변비는 중한병에걸렷슬때 특히 폐염(肺炎)에걸렷슬경우에 됩니다만 젖먹는애기는 건강한때에도 젖을너무 먹어서 변비되는 수가잇습니다 (우유를 너무먹으면되려 설사를 합니다) 변비가되면배가불룩해서 띵기고 가슴이답답하고 숨쉬기가 곤난하고 식욕이 잘안나고 머리가 아프겟습니다 그러나 갓난애기는 말을못하니까 어른들이 알까닭이업지요 그래다가 별안간 변채기시작하야 울진안이난리단집처럼 되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보면 어린애기에게 변비가잇슬때면 번번히 관장을 합니다만 이관장이란는것은 여간 경우가아니면 안할것이고 또 자주할것이 못됩니다 왜그러냐하니 너무자주하면 항문의 기계적장용이둔해저서 편장을 아니하면 뒤를못보게되니다. 뿐만아니라 되려 변비가버릇이되다시피되어 버립니다.

◇

젖먹는 애기에게 변비가잇슬때는 실과즙을 내어 적은사시로 두숟씩 하로 두번쯤 먹이면 조흔데 좀더대단할때는 서너숟갈까지 조흡니다 그러나 그분량의 정도가 조곰 지나치면 설사하기쉬운즉 주의하실일입니다. 그리고 이실과집외에 물엿(조청가튼것)이나 『말트·엑기스』(麥芽엑기스-고용엿)을 물에 오푼-일센트가량 녹여서 두서너사시씩 먹이면 조흔데 이러케 이、삼일만 계속하면 자연히 뒤가 잘통하게됩니다. 그래도 안들때는 의사의 진찰을 바다 내복약을 먹일지언정 되도록 관장은 마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드러뉘어노코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훌터주는것도 조흡니다.

◇관장은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한데 물과『그리스린』을 반반식 석거 한번에 오그람 내지 십그람으로합니다.



미래의정거장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란곳에 모형철도 전람회가 열렷섯습니다 사진은 거기에 출품되엇든하나인데 여간정교하게 맨든것이 압니다커-다란건물은자동차의 차고(車庫)인데 옥상에는비행기(오-토자이로)의 착륙장이 되어잇고 맨아래층은 정거장입니다 이러한 정거장이 생겨날날도 머지안켓지요

운수터진 낙시질

『레이스티-』라는 사람은미국서쪽해안『롱·피-취』근처에 뽀-트를 띄워노코 낙시질을 햇는데 뜻하지안흔커-다란 상어한머리가 걸려드럿습니다 그런데 그상어를 잡어내노으니까얼마안가서새기를 열몃마리나 나어노앗습니다 『레이스티-』씨 대단히 버해젓지요 한번낙시에 고기가 열몃마리 걸린 셈이니까요

우리차지

엿구루마를 끌고 가위소리를 절렁절렁 내면서 하로에한번식 꼭이 골목을 지나가는 엿장사영감님、벌서사흘째 되는데 안지나간다。내가엿이 먹고시픈게 아니라 그이가 어디 알타부다。

(공동서룰 전조혜)

눈우의흉

問 一、저는 당년 이십세의 과혼녀자이온데 유시에 불행히 안부에 상처를 당하여서 양약으로 치료한바 완치는되엿스나 적지안흔 분홍빗 험이생겨 대단히 꼬민중이오며 무흉이 치료할수잇사온지 하교하여주시요

二、저는 지금삼십세의 남자이온데 지금으로부터 십이년전에 코에 우연히 종기가나서대단히 보기실케흉이젓습니다 그래서그흉을 업새고저하온데 업새지못한다하여도 좀적게할수업슬까요 입원치료를하지 안허도 조흘까요 비용과시일은 얼마나걸니오지 하교하여주시요

答 어느정도의 흉인지 실제로보기전에는 정형수술로 현재보다 낫게될것인가 아닌가를판단할수업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조 업새지는 못할망정 다소적게할수는 잇습니다. 전문의사에게 뵈이고 의론하야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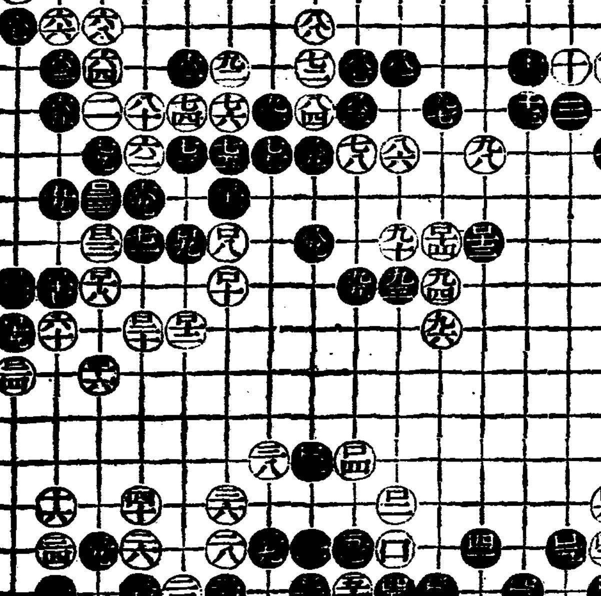
경과는 약삼주일이오 입원을 아니하고도 될수잇고 비용에대하야는 말삼하기 곤난하오니 즉접 치료바들 의사에게 상의하시오。이가튼 미용수술비는 보통수술비보다 약간 더 만흘것입니다。

(城大小兒科 醫學博士 金鎭成)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8=

白 丁圭春
黑先 權秉郁

●二三 庚의七
○二四 辛와七
●二五 巳의九
○二六 巳의十
●二七 午의八
○二八 巳의八
●二九 未의九
○三〇 辰의九
●三一 未의八
○三二 巳의七
●三三 巳의六
○三四 未의十
●三五 子의十五
○三六 癸의十六
●三七 丑의十六
○三八 乙의十五



棊穜文氏評日 黑未申五六區進展局도 放置하고는아니되며 白이 午의七로 連絡을 要하면 劫아니고는 活路가 難便하니 黑先着이 鮮明되고 白은 丁의十三四로 現勢이 結末成就으로 乙의十五入着이 正合時機며、順序로 次第構成하니 兩一手 勝敗手段으로 善處하노라

速斷은大端한損

여름은반듯이 化粧이밀리는것이라고速斷하여서는아니된다、白粉이땀과 기름에밀려기쉬운것은 原料가나뿌고粉子가粗雜하야살결에粘着力이업는것濕氣에對한 吸收調節成分이 不完全한까닭입니다、이러한粗雜한白粉은 조곰만더운날이면곳밀리여얼룩얼룩해서醜해저서 한곳한化粧이보할이업서지고맘니다。

一、優秀한白粉

레-도白粉은嚴選한最高의 原料를現代科學의理想的方法에依하야 精製한故로그粉子는極度로細微하게되여 살결에꼭붓고理想的으로 配合된有效成分이땀기름의分泌를吸收調節하야 決코밀리지안어서아츰에바르면저녁까지、淸新한化粧美가 그대로남어잇습니다。

二、바른여름의化粧

또바른여름의 化粧方法으로말하자면、먼저레-도콜-드구레-무로 二三分맛사지를하야얼굴에더러운것을씨서버리고、레-도 美容水로씨슨後에、레-도구레-무를바릅니다그런後에、레-도粉白粉을 바루로아레서우로向하야 가볍게두들기는것이바르면살결에 꼭붓습니다、化粧을마칠라면레-도연지입술연지로!이것이면 아무리더운날에도 땀과、기름에밀리지안코오래가는化粧이될수잇습니다。

流行の近代色!

여름볏에밀리지
안코서늘한化粧

レート白粉
레-도

レート化粧料本舗・東京・平尾贊平商店

…마…달…자…는…湖…心…

學藝

【文壇雜感】② 倦怠에 저친 近來評壇

朴英熙

그러하지만 現在 朝鮮文壇에서 陳腐한것이기는 하나、唯一한 物議를 이르키는 論客들은、事實上 그와는 正反對로서 展開되여잇는것이다。近間에 先進 新進할것업시 만흔 評論家 諸氏의努力이 잇는中에、바야흐로 沈滯되엿다는 文壇의活氣를 때인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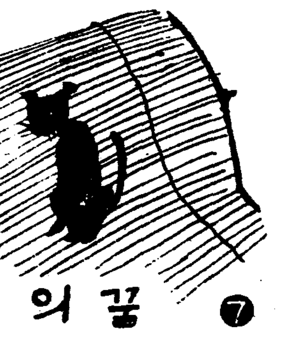
……騷…… 擾를 이르키는 論客들은 이미 말하엿거니와、林、韓 두 사람을 비롯한 一隊라고 보겟는데、그들亦是 自己들의 意見을 發表하는것이 그들의 自由일것이나、現在 그들의 論戰으로서오는 文壇에 미치는 功果라는것을 생각 할때에는、特히 一言을 아니치못하게 되는것이니、가령論戰하는 主體가 學問의 探索이나 眞理를 위한 眞實한 誠意에서 나온것이라면、各自가 論議하는동안에 眞理의 具體的어떠한 結果가 잇슬것임에 틀님업겟지마는、그것이 十年이나 五年前이나 現今에나 同一한論調로、平時에는 잠잠하다가、그들과 反對되는듯한 論文이 나오면 비로소 活動을 始作하야 그 陳腐한 典型的 反駁을 開始하되 辱으로 快感하고、그 眞에 잇서서 謾罵하며、따라서 그 意에잇서서 反하는것으로는、아모 效果가 업다고 나는 생각한다。

相對者를 一平生 두고 歌하드라도 아모効果가 업고 말것이나、가령 林和나 韓曉가 一致合力하야 白鐵을 歌할지라도 그것이 두사람사이에만 머므르고 마는것이니、그까닭은 그 歌文의 精神이 眞에 잇지안코 辱에잇는 緣故라고 말할수잇다。白鐵君이 人間을 探究하것다는것을 말나고 阻止할 必要도 업고、權利도 업는 一便、林君이나 韓君이 政治的 文藝論을 創設하겟다는것을 또한 是非할 必要가 업스나、나는 文藝의 本道라는 一定한 標準點에서、彼此에 不必要한것에 競技的野心을 發揮할 必要가업지안는가하고 質問하고십다。

마일 政治的文藝論者인 論客들이 참으로 目前에 功利心을 버리고、朝鮮文壇을 爲한다면 論보다도 實로써 巨大한 名作에 着手할것이 當然한것이니、모든것이 作品에서 研究되고、證明되고 探索될것이다。林君이나 韓君等

……諸…… 家들의 코-스인 鐵路우에 巨石을 노하 障害하려는 사람은 업슬것이다 마일 白、李君等이 左翼에서 敗北하엿다면——李源朝氏의 最近 論文에서 보이는바와 가티、그들이 敗北이라면 그것은 白君이나 李君等이 自己體系를 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文壇的 [illegible] 잇는가。

한여름밤의 꿈 ⑦



×

사러진 記憶을 되푸리하는 瞬間처럼 헛된瞬間은 업슬숭잇지만 어떠면 감작이 애일을 追憶하는 섬리한 내마음을 나로서도 엇이지못할때가잇다。

이이야기도 한개의 섬리가 아닐수업슬던지모른다。

그러나 지난날의 여름밤의꿈을追想하고 오늘의 窮狀을잇는것도 過히 罪될것은 업슬것도갓다。

×

[illegible]

원두막에서매진 難解의 方程式

嚴興燮

[illegible]은 慶南에서도 有名한 수박과 참외의 名産地인平居面이다。내가 이平居面에잇는것은 至今부터 거이 十年前의 일이니까 내나이로보면 한창새파란 二十前後의 靑春에 躍動할때다。하로는 學校에서 아이들을보내고 책상을 느러노코서 낫잠을자고 잇노라니 K라는 젊은 學父兄(나와親한사이인)하나가 놀치저와서 자긔집 원두막에놀너가자고 꾀이는것이다。내가 수박이나 참외를 조화하는程度를 이젊은 學父兄은 잘 알고잇섯기때문에 원두막에 일으자마자 커다란 수박을 두개 백참외를 세개 노랑참외를 다섯개나 따다가 원두막 바닥에 궁굴니엿다。

K라는 사람은 다만學父兄으로서만 親한게 아니라 一種의 로 나와情이 通하는 데가 만핫기때문에 조금도 虛물이 업는터이엿다。

K와나는 거긔서얼마되지안는 산미트로 구비처흐르는 南江의 맑은물에 뛰여들어 한바탕 水泳을 하고 선선한氣分으로 언덕에 올나와 南江銀魚회로 有名한 술집에 들어가 막걸리를 두서너사발식 드리키곤 원두막으로 도라왓다。

저녁해가 떨어질때까지 K君과나는 "사루마다" 바람으로 원두막에 딍굴면서 文學이나 무어니 하고 떠들어대엿다。

한참만에 그와나는 이야기의 方向이 "에로"로 轉換하고잇섯슬때

「오빠! 오빠!」

하는소리가 원두막 아래서들려옴니오자 우리는 깜작놀낫다。

K군의 집에서 K군의 저녁밥을 K군의 누이동생이 그때 가지고온것이다。

그는 京城某女高普에 在學中이엿는데 여름放學을하고 歸鄕한지 不過二三日밧게 안되는 十七八歲의 어엽분 少女이엿다。

그는 목판에 저녁밥을 니고 農村處女타입으로 행주치마를 입고잇섯다。

우리가 저녁밥을먹는동안 少女는 수박바레서 수박을 이놈저놈 뚜겨보곤햇다。

그러곤 K가 따주는 수박을 몃개 목판에 이고 갈뒤에 업마안되여서 少女는 젹보에 무엇을 푸려가지고 잇가임고온 압치마를 벗어버리고 깡정보이루치마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뛰여와서

「오빠 숙제좀가르켜줘요!」

하곤 서울말에 올드롬 정상도사투리로 말을햇다。

나는 K의 소개로 그자리에서 이少女와 인사를 햇다。

닥지못지로나는 이少女의 代數宿題를 푸려주어야만하게 됏다。

그이튼날도 또그이튼날도 나는 K君을通하야 그少女로부터 宿題를 푸러달나는 請이올때면 마다 拒絶하지 못하고——아니無上의 幸福으로 快樂으로알고 원두막으로 뛰여가곤햇다 어떤때는 K君은 본두이와 나만남겨노코 수박을따는체 하곤 바트로기여가선 두어時間 또는 서너時間뒤에 오기가 例事엿다。

이러는 동안 나는少女의五十餘題나되는 代數宿題를 完全히 풀어주엇다。

그러나 젊은나의探求한가슴은 少女의 代數宿題보다 훨신 어려운難解한 方程式이 [illegible] 솟아오르고잇섯다。

「그의 [illegible] 方程式을 내마음의 [illegible]」

×

나는 그뒤 二十餘日을 지낸 어느날밤 또바게 K君의 누이동생과 달빗치푸른 白沙場을거닐고잇섯다。

내손엔 少女의 보드라운손이 꽉쥐여잇섯다。少女의손은 나의팔을 잡고 [illegible]

[illegible]

存在의 辯護 ② —人間과그自己限定에關하야—

金基錫

물이 구름으로 변하다고하자。물이 구름으로 밧고엿슬때 물은 자기를 물로限定하던 性格을 버서난것이된다。그러나 물이 구름으로 밧고여가는동안에 물은 마즈막 방울까지 물로서의性格을 主張하지안허서는 안된다。자기를 곳까지지키면서 구름으로 밧고인것이 아니라고하면 그것은 물이변하야 구름이 되엿것은 아니다。어떤것이 어떤것으로 存在하는限 그것은 그 자신의 性格을 지니지 안허서는안되는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진실로만흔것들이 둘려잇다。산과바다、풀과나무、해와달과 하늘과별、이모든것들은 모도자기를 다른것들로부터 빗나게구별한다。人間마저 그속에서 자기를 人間인것으로 主張한다。

人間을 어떤 조그만 微生物로부터라고 가르치는 이들이잇다。人間뿐아니라 모든生物이모도 이어떤微生物에서 헤여저나왓는지도 모른다。그리고 이조그마한 微生物이란것이 흙이니 물이니에서 엇저다가 생겨나왓는지도모른다。그러타고해서 우리들은 오늘의 現實人間을 한개의 微生物과 混同하는일이잇는가。흙한덩이를 피는꼬치나뒤여가는 벼아리와 混同하는일이잇는가。

모도를 하나로보려는 이世紀의 이상한癖。이하나가 모도를 支配 統一 決定한다고 보려는 이世紀의 이상한癖。물을精神으로 보는 물을物質로 보는것보다는 물을 물로 생각하는것이 물이나 돌에대한 진실한 理解가아닐가。나무를物質로 보는것보다는 나무를 나무로 버레를 버레로생각하는것이 나무나 버레에대한 진실한 理解가아닐가。

우리들은 人間이 먼저가기를 人間으로限定한다는것을 어데까지던지主張하기로한다。宇宙에는 實상主宰하는 神이잇는지도모른다。그리고 이神이眞有를 처음부터 그러케 만들어 노앗는지도 모른다。그러나神은 人間을 人間으로 만들어서야 할것이고 풀이나 나무로 만들어서는안된다。그때 神은 아직 人間을 만든것이아니고 다른한개의 풀이나 나무를 만든것에 지나지안는다。

人間은 神이만는것이아니고 그자신 부단히 변하야 나아가는 것인지도모른다。그리하야 이久遠한 生成속에서 人間과함께 용소슴치흐르고잇는것인지도모른다 그러나 人間이 변하는것인한에서 人間은 자기를 부단히 人間인것으로 만들면서 변하지안허서는안된다。人間이잇서서 어떠한지못할 生物에서생겨나서다시 어떠한지못할 生物에로옴겨 간다고보더라도 人間을 나흔生物은 오늘의 人間과 구별되어야하고 오늘의 人間은 다시자기가그것이될 未知의 어떤生物과 구별되지안허서는안된다。가령 A와 B와 C를 直線우에노힌 세개의點이라고 생각하라。이A와 B가 同一한 位置에 노힌 同一한 點을意味하는한에서 A로부터C에의運動이 可能할것인가。

우리들은 「人間은잇는것」이다라는 한개의 命題에서 出發한다。그리하야 「잇는것」의 性格을 限定性으로보앗고 나아가限定性의 意義를 생각하는데잇서서 人間의 存在者로서의 權利를主張했다。놀랍만한 懷疑論者가 아닌한에서 人間이 잇다는事實을 否定할수는업는것이다。우리들은 이한개의 진실한 主張에서 모도가 이限定性에잇서서 주어진다는 基本原則에나서지 안허서는안된다。

우리들은 나란것이 움직이고잇슴을안다。그리고 나와마조서는 그대가 움직이고잇슴을 안다。어제의나나 그대는 오늘의나나 그대는아니오 오늘의나나 그대는 내일의나나 그대가되는 것이 아니다。

人間은 時間에잇서서 부단히 움직인다。——이見解를 우리들은 人間의 第二反省이라고 부르려고한다。이時間이란 무엇일가 時間이란 運動을意味한다。時間이란 持續을意味한다。運動이란 무엇일가。잇는것은 時間에잇서서주어진다。時間에잇서서 움직이고옴겨간다。모도 流動과變轉。모도는 그자신 부단히 쉬임업시 움직여야하는 久遠한運命을가지진다。

—隨一筆— 여름風景 (8)

蔡萬植

[illegible]

席島의 老翁

[illegible]

壯快無比한 山岳登攀의 實際 (五)

崔圭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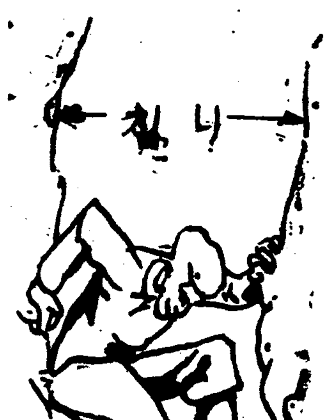
實際登攀과動作

基本動作의 力學的練習을 得한後 技術的으로 岩場에 確保된 身體의 平衡을어든後 一步進하야 實際岩面에 當面되여 登攀을 始作할때 가장注意할 個人動作의 基調는 最大의 沈着이다

이제 「홀드」에 適應시겨 實際登攀과 動作을 大略說明코저 한다

『카리』、『친니』、『쿠락』어떠한 岩場을 勿論하고 共通된 動作을 몬저쓰라한다

一、胸部와 頭部를 岩壁에面接하지마라 이것은 눈의視界를 넓게하는 同時에 平衡을 正確케하며 自由의 合理스럽게하는것이다



二、올너갈때에는 손보다발을 만히 使用하라

이것은 平衡을 위하야 補助力이다 손은 [illegible]

三、말을 노피올녀라

手足으로써 平衡을 支持하고 同時에 膝部를 適當한 位置에 移動시기면서 身體를 밀어올녀야한다

四、動作을 조용한 律動으로하여라

岩場에서 더러더러떨어지는것은 必要치안타

五、登攀에 摩擦力으로 오르는法과 平衡力으로 올려가는法이잇다

岩場을 正面으로 相對하야 올려감이라던지 下降時에는 등지고 내려옴이라던지 橫으로하야 各其個人의 技術的特長에 따라 同一한 岩場이라도 各個人의 [illegible]

六、登攀에는 節力의 節約이 重要하다

無理하지아니한 平衡을 取하면서 節力의 浪費를 避하고 操縱을 가지고 不斷히 進行함에努力하여야한다

[illegible]

『친니』에서는 『홀드』가업더래도 背壁(背)으로써 올너갈수가잇다 動作時는 한쪽발노서背壁을 『벗두고 무릅을 屈伸하면 [illegible]

直上登攀時의 『홀드』에 應하야 몸全體의 動作을圖示한인데 左側의曲線과 가티移動하여야하고 무릅을 橫으로넓혀야한다

讀者社交室

▲本紙讀者中 昭和三年三月二十日에 淸雲公普校를 第四回로 六學年二組를 鈴木茂先生에게배우고 級長李三得을 爲始로五十餘名이가티握手相別한지가 벌서 九年이나되도록 우리는 그後서로消息을 몰으고지나니 學窓時代가퍽새삼스럽게追憶됩니다 이번에同窓生과 함께뜻한바잇서 舊師와함께同窓生談話會를하자고하오니 뜻잇는同窓生은 어느方針으로하야 조을는지 모이게할道理가잇거던本紙社交室로나本人에게 直接通知하야주시요

市內阿峴町三九〇ノ二七號 黃哲周

▲金海서上京하야 太平通二丁目에居住하며 學生下宿을 經營하신 沈宜麟氏 只今은 어느곳에住在하시는지 住所를좀알려주시요 其間數次上京하여 探知하여보왓스나 알길이업서서 섭섭이도라와왓습니다

黃海道信川郡武井里 嚴鐵宗

▲小生은 受驗準備生으로 若干의書籍을蒐集中이온대 歷史에關한 敎科書其他參考書가有하시면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십시요 高價買入多少謝禮

京城府崇仁町二一〇 李宗來

▲十五日前朝鮮日報廣告欄을通하여 中國語講義錄을 發刊한다하엿스니 其것은山東省、滿洲國語입니까? 調査하여貴報讀者社交室에至急히通知하여주시면 고맙겟습니다

平壤一讀者

▲生은 孤獨한文學을 조하하는한로마 찌꺼기靑年입니다 同이方面을中心하며 特히 兒童文藝를 中心하여感은靑信이나 或은相議하여서나 相互매질하여讀語도해서 꾸준이나가볼가하온대 가티 孤獨한벗이게시옵거든 左記로 通信이잇기를바랍니다 가삼을 활작열고 사괴고저하오니

釜山府草梁町三三七 文曉二

▲원산루씨여고를졸업하신 문산호(文山昊)씨 지금어느곳에계십니까 소식업시지나기를십년이넘어습니다 동무의잇는곳을 이여러독자중에 문산호씨의현주소를 아시는분이잇사오면 독자사교실을통하야 알녀주시오 홍은 소식을아시는분이잇사오면 독자사교실을통하야 알녀주시오면 감사함을마지안켓습니다

(한창시제일갓갑는동무S·H)

▲讀者諸氏께로 社交室을通하와一問하오니 容恕하시고下敎해주심을바랍니다 三、四年前 朝鮮日報인가 又는每日申報인가에 夢遊編이連載하엿슴을보앗섯스나 拔萃를만하엿드니 只今에는 어느參考로必要하오니 或은冊子가잇스면 이하여 所持者住所氏名을알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忠南笠場面良岱里 李善烔

▲上海로工夫간 河奉祐李正禑 李正淳三氏께安否못습니다 떠나갈적엔 종종便紙나하겟다더니 三四年이지나도록 消息조차알수업스니 엇지된일입니까 이곳동무와가티消息을나답답하오니 이社交室을通하야 安否나알니여주시옵소서

朝鮮海州市 [illegible]

▲本欄으로 景永問題한 貴下는韓在眞應 眞徹에게좀합 [illegible] 漸을어되서알엇스며 貴下의住所와本名은무엇입니까 제일홈이韓在漸인데 貴下가問議하는『어머니놀라는 作品에對하여는 記憶이나지안슴니다 何如間仔細한것을알고시퍼니 京城府 [illegible]町一四六 批判社內韓曉苑으로 通信하여주십시요 이만

貴下가물으시는 韓在漸

▲諸氏께希求하나이다 新舊를 勿論하고 露國、滿洲、中國의詳細한地圖를所持하신분 [illegible] 하실분이게서겨든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오 發行所일으켜주어도無妨하나이다

平原郡公德面松倉里 金載鶴

▲江原道伊川邑에 本籍을두고 昭和四年度頃에 咸鏡線新上驛前 某氏宅에잇다가 開城에가신 金順敏(當年二十一歲)는至今何處에居留이온지요 消息이나알엇스면하고 大端히 懸念하는바입니다

咸南豊山 [illegible]

新刊紹介

▲兒童文藝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九八 兒童文藝社 振替京城六三四九番 定價五錢

▲讚聲月報 第四號發行所 京城府孔德町二三ノ一一 讚聲社 振替京城一九七四五番 定價一部五錢

▲朝鮮商工獎勵館報 第三十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定價十錢

▲監理會報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三一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三七番 定價一部五錢

▲實業時報 第六〇號(月刊) 發行所 釜山府佐川町六六九 實業時報社 定價一部十錢

▲聖書朝鮮 第九十號 發行所 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聖書朝鮮社 振替京城府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胸やけ

▽食後에가슴쓰린데……
▽트림을連發하야酸味가 석겨첨도는데……
▽空腹時에胃가압흘때에

胃酸過多症에 胃壁을護守 制酸鎭痛劑

婦人들에는一般的으로神經質이만어、內分泌神經의興奮에依한胃液의分泌을늡혀胃酸의過剩狀態에빠지기쉽고、더욱히胃酸에對한胃壁의知覺이過敏하기때문에容易히가슴쓰린症、噯氣、溜飮、胃痛을알케되다。

ノルモザン錠(主効는珪酸アルミニウム)은從來에使用된重曹劑에서는볼수업는諸作用에依하야 原因的治療効果를나타낸다。

●胃壁의粘膜에 被覆保護하야 患部에미치는胃酸의 刺戟을 업시한다。
●酸을中和吸收시혀 그量을 한다。
●分泌神經의興奮을鎭定하며、分泌腺을收斂하야 胃液의過剩分泌를通常的으로 回復식히며過剩胃酸生成의 原因을 除去한다。

【秘便】胃酸過多症에따루기쉬운便秘에使用하면腸의蠕動運動을도읍고自然的으로便通을促進식힌다

【適應症】胃酸過多症、胃液分泌過多症、胃痛、胃カタル、胃痙攣、胃潰瘍、惡醉、宿醉에!

【價格】二回分(二〇錢) 三日分(三〇錢) 一週間分(一圓) 十六日分(二圓) 一ケ月分(三圓三〇) 二ケ月分(六圓)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東京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잔

武田發賣品

36—1025(6)

連載野談 布衾記 (六七)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북을찟는그칼 (十一)

호동왕자가 이례美 괴로운마음을 이기지 못하야 어떤듯이 안젓는중

둥! 둥!

별안간 고요한 밤을 울치이는 큰 북소리가 들려왓다.

「아야. 이것이 웬 북소리인가 내가 이곳에잇는 줄을 모르시고 아바마마께서 또한 군사를 움지기어섯나?」

하며 호동왕자는 그북소리가 국무고(國武庫) 안에잇는 그이상한 북소리로 알고 크게 놀래며 락랑왕의 괴색을 살폇다.

그리고 잠시 수단으로 공주와 인연을 맷즈려는것이 최악이 되는듯 그쓰라리든 마음은 별안간 살어지고 그대신으로 무서운 늣김에 생기엇다.

그런데 락랑왕의 얼굴에는 별다른 괴색이 보이지 안헛다.

둥! 둥!

그 알수업는 북소리는 여전히 무거웁게 들렷다.

『허허 벌서?』

하며 락랑왕은 그북소리를 짐작하는 괴색을 보이며 호동왕자를 향하야

『늙은 몸의 령의업는 접대을 듯기에 괴로웁게한것이 또한 주인의 도리를 억인것。대범 남녀두성을 합하는것은 일백가지 복(福)의 근원。그근원을 찻는것은 인류의 큰일。그럼으로 그런 큰일을 경솔이는 못할일。나는 이미 작정한바 잇거니와 왕자는 더생각하는것이 백번 당연한일。그런데 밤도 이미 느젓스니 오늘밤의 미진한 생각은 밝는날을 기달여서。』

하며 거만 도라가 편히 쉬기를 권하얏다.

락랑왕의 이말이 끗나지 공주는 고히 일어나 락랑왕께 다시 두번 절하고 도라섯다.

그러는중 먼저 호동왕자를 바라보고 그것이 녀자의 행금에 억은일것으로 후회한듯것을 이제 버렷듯이 또한 호동왕자를 힐끗 바라보앗다.

호동왕자도 역시 몸을 일어 락랑왕께 두번 절하고

「미거한 어린몸을 위하사 옥체가 피로까지하시게 되것을 황송한줄 알외오 오늘밤 미처 알외지못한 하정(下情)은 분부대로 밝는날에 알외것으로 알외오.」

하고 단정한 거동으로 어전을 물어섯다.

그리고 은근히 공주의 물아가는 뒤태를 바라보며 공주가 인사말 한마디업고 또는 한번 더 도라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것이 어쩐지 원망스러웟다.

대저 호동왕자를 놀내든 그북소리는 국무고(國武庫)안에잇는 북소리가 아니라 시간을 마튼 파원이 자시(子時)가 된것을알리는 북소리이엿다.

그럼으로 락랑왕이 그북소리를 듯자 밤이 어언 깁흔줄을 알고 호동왕자를 권하야 침소로 도라가 쉬게한것이다.

그런데 락랑왕의 어전을 물너난 공주와 호동왕자는 다각각 침소에 도라가 자리에 눕기는하얏스나 잠을 잘 일우지 못하얏다.

특히 호동왕자는 자리에 누으며 모든것을 이저버리고 단꿈을 일우려하얏스나 갑사록두 눈이 더욱더욱 맹송、맹송하야지며 도리혀 자극가 이미 마음에 깁히 새겨 그이상한 북과 곡각을 조처하려는것은 물론이까 락랑왕어전에서 못고 보든 모든것이 도렷도렷히 생각키엇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주의 우는 그모양. 울지못할 자리에서 눈물흘니것을 붉으레히 생각하든 그모양. 그런뒤 락랑왕께절하고 물어설때 은근히 도라다보든 그모양. 이것은 아무리 어절내야 이질수가업섯다.

그리하야 곳 공주방으로 뛰어 드러가서 그눈물이 흘르려고하는것을 참으려할때 가벼운게 [illegible] 그에도볏 가러 붉은 두입설을 니(齒)끗으로 짝 물어주고도 십고 밀정 눈물을 흘닌뒤에 쌍정해진 그두눈까풀을 손바닥을 짝펴가지고 삼삼씨다둠어 주고도 십흐며 나종에는 그오동통한 히손을 꽉잡고

「공주여! 내게 대하야 어떤 감상이잇소?」

하고 그 꽃가튼 얼골을 처다보며 물어보고도 십헛다.

이에 호동왕자는 자리에서몸을 벌덕이려나 버섯든 외복을 다시 챙겨입엇다.

娛樂

토ー키ー의根本問題 —몬타쥬에對한論—

④ 林 蔚 川

또한 平凡키은 映畵에 音響을配合식히는 可能性을 다음의例로 說明한다

『한사람의女人이 그의 男便을 停車場에서 餞送한다

汽車는 이제 막 떠나려하고 잇다

급작히 그女人은 男便에게무슨重要한말을 이야기할것이잇는것을깨닷는다.

그러나 그瞬間, 그女人은이야기할녀는말이 무엇이가를 記憶하지못한다

그리고 애를써서生覺해낼녀고할때 그 女人은(幻覺으로)機關車가 蒸氣를 뿜는音響과 車바퀴가돌아가는 소리를듯는다

그女人은 興奮가운데서 몃秒만지나가면 男便은떠나고 말것을 生覺한다、하나 그女人은 生覺을가다듬을수업다。

떠나가는 汽車의 소래가 귀에 들녀온다。

그러나汽車는 여태도 홈에머물너잇다。』

이경우의音響은 둣지 못한三强度의劇的境遇에加하는것이다 그때의音響은 正常化되고適當하게使用되야잇다 웨그러냐하면 거기서音響은 가장힘이强한劇的表現의手段이니까――以上으로 토ー키ー의對位法은 具體的으로 또는原理的으로 究明되것을 볼수잇다.

三

나는 여기서順序로 토ー키ー表現에잇서서 畵와音의 處理에關한 理論을提示한다。

우에서 나는 토ー키ー의 技術的基礎가 畵面과 音의 同時化라고하얏다。그런데 이 同時性으로말하면 音響과 音源의同時的再現이다

그와反對의 位置에잇는 非同時性은 어떤影像과 독가른時間에 나는音響이 一致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前者가 音을 特定의 音源에서 獨立식혀서 音그것에 特定하意味를주고 獨立된 因子로서 使用되는것이지만、右者는 音이 그音源에서부터 獨立해서 달은影像과 協力하는것이다 말하자면 映像과音響이 同時에同一한 表現任務를 가지지아니하고、서로 서로 表現의機能을爲하야 分擔하는것이 特徵이다

라디오

十八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秦金星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東亞日報社
◇同八時 講演 親架과人生 高永煥 金晉燮
◇同八時三〇分 農村歌謠 水色農夫 張百中 趙春寧 朴紹山 朴今同 李壽男 趙允元
◇午後九時 一、靑春 라데뷰ー 二、구름도흘녀가고 三、黃昏의牧童 四、어머님품으로 五、人生의봄 六、달비출안고 金貞九
◇同九時三〇分 古談「背信取亡」 伴奏OK 聲絃團 張志浩

第一放送

◇午後六時(名) 傳說童話
◇同七時三〇分(東) 라듸오·드라마、
◇同八時(大) 피아노獨奏 레오니도·크로이쟈
◇同八時三〇分(東) 講演
◇同九時 時事解說

十九日（日曜）

◇午後零時五分 西道立唱 一、놀량 二、압山打鈴 三、뒷山打鈴 四、경발님 五、山念佛 金逸淳 任彩鳳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合奏 一、合奏…「童謠集」 二、五重奏…부랑겔將軍 三、合奏…바르세로나 四、五重奏…砂漠을지나는隊商 五、合奏…프라니食之拔華曲 六、五重奏…高等學校生徒 第一高普하ー모니카밴드 指揮 申學彬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盧基南
◇同八時 獨唱·合唱 一、短歌"名妓名唱" 二、唱劇調"마석퇴" 三、새타령 崔鳳寶
◇同八時四〇分 라듸오、코메듸「男性對女性」二編 ―配役― 李仁植……河一琫 敬淑…(그의妻)…李英愛 金俊根…(그의친구)…宋芝蘭 榮子…(俊根의妻)…朴瑞子 吳永鎭…(그의叔父)…高明涉 아이스크림行商……徐月影 演出 李瑞求 放送劇協會 效果 ……
◇同九時五〇分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 ―大連으로부터― 吹奏樂 一、行進曲 로ー레야잘잇거라…만네르作曲 二、圓舞曲 오ー버·듸·웨이브스…로ー자스作曲 三、接續曲 모스코ー의追憶…이바노빗치作曲 大連國際運輸吹奏樂團 指揮 森 ……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少年音樂講座
◇同七時卅分(東) 浪花節
◇同八時(名) 尺八
◇同八時十五分(大) 名作物語
◇同九時五分(大) 長唄

二十日（月曜）

◇午後零時五分 溪念 一、溪念 外 二、六字배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崔素玉 洪素月
◇同三時一五分 衛生講演「貧血이야기」 醫學博士 金晟鎭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두루미會 指揮 金相德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社 徐椿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一) ―山岳傳說의밤―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白頭山과朱果 柳光烈
◇同九時 漢拏의三神人 車靑吾
◇同九時三〇分 胎藏山그일홈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歌謠曲
◇同六時(大) 連續漫談劇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피아노와管絃
◇同八時二五分(大) 俚謠
◇同八時五〇分(東) 詩吟
◇同九時(東) 落語

史劇 端宗哀史 十五幕十七場

脚色 朴 鎭
演出 崔 獨鵑
配役
文宗 黃 澈
端宗 尹 才蘭
首陽大君 徐 月影
皇甫仁 朴 齊行
金宗瑞 卞 基鍾
鄭麟趾 河 之滿
成三問 沈 影
朴彭年 林 仙圭
柳誠源 金 健
王妃 車 紅女
以下略

青春座總出演과 東劇座、喜劇座幹部俳優賛助出演으로 史劇端宗哀史를上演하게되엿다 人間으로도또는 君王으로 가장슬픈一生을마치신 端宗의生涯를 눈물로그린이演劇 今年의雄大 其他여러가지로보아 劇界의一盛事임에 틀림업다 脚色、演出、配役모다 豪華를갓추어 寫眞은端宗哀史의一場面 ―十五日부터東洋劇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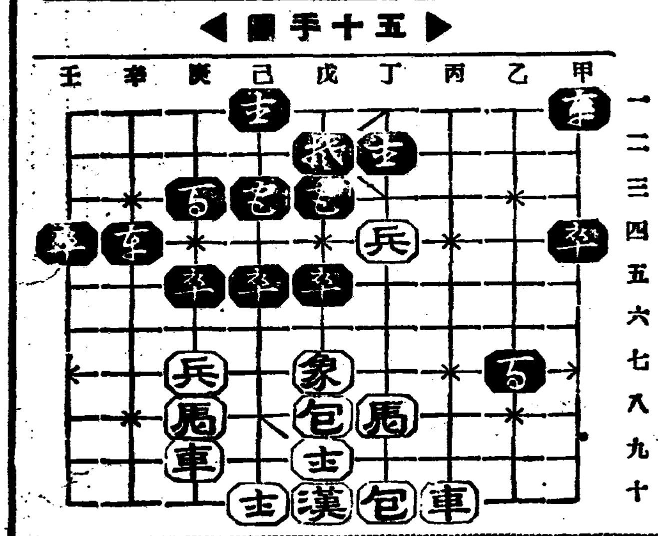
☆曆☆

七月十九日（日） 陰乙未六月小（初一日） 壬寅·金·畢·危
●開市納財移徙에吉함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將棋名手對局譜 (六)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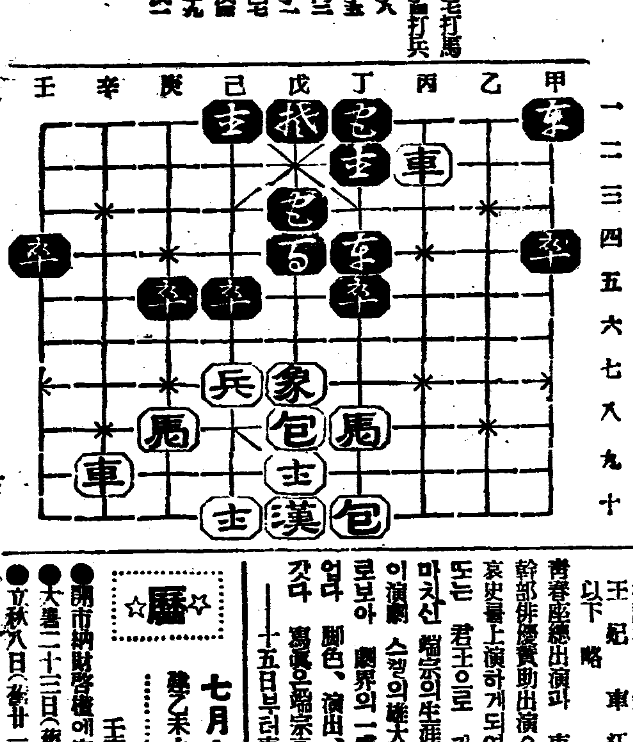
漢先手 一兵 李在鳳 對 李英鎬

◀第十五手圖▶



◀第十六手圖▶

丁大馬—乙七打馬 辛一車—丁四打兵 乙四馬—丁大 戊五卒—丁五 丙十車—丙三 己二包—丁一 庚六兵—己七 庚三車—庚四 庚六車—辛九 戊三車—戊一



專賣特許 最强力殺虫劑
イピンレス
(蠅必立死)
여름의强敵
害虫무리 一掃식히라!
傳染病의媒介者 파리 모기·빈대等도이파리스의撒布로고全滅된다
世界的殺虫試驗法 배ーㄹ·트라데ー氏法採用 殺虫効力 百퍼ー센트
神戶 長岡驅虫劑製造株式會社

商標 千壽 고초가루 部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本局一三八二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슴니다

小粒洗濯 비누
ビーズ
어떠씁니까:
잘溶解되는것!
잘洗濯되는것!
ビーズ를使用하면洗濯이 速히됩니다
獨特한小粒狀으로 純植物性인까닭입니다
다른가루빠누와比較하여주십시요
一函·十錢 德用函·卅錢
손과布地를압흐게안코、가장經濟的인!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 長瀨商會·大阪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獎
ノーシン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려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번두리를압흘때……노ー신
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賣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이商標에注意하시압
發賣元 名古屋市東區東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七月十八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無說明
◆R·K·O·라듸오超特作映畵 世界的歌手 리리폰스主演
戀歌 (I Dream too Much) 존·그롬웰 監督
今夏代表的音樂映畵이以上더훌륭한世界的쏘프라노의絕唱을드를수업다、關屋敏子女史日、몃번봐도실증나지안는映畵、藤原義江氏日音樂映畵中의의最高位에올칼소以後처음듯는쏘프라노의무서운魅力
◆R·K·O·라듸오超特作映畵 월리암포엘 진자로쟈쓰 主演
深夜의별 (Star of Midnight)
포엘과로쟈스의名콤피네숀!무더운여름을라시업시爽快한納凉映畵로서壓卷
◆日活超特作映畵 リングの王者 ―（次週廿三日封切）―
喇叭初戀、人形의母(近日封切) 百萬의感激、폐로니카의핏다빗、盛裝의밤、空中에울니는音樂、새벽의行狀記、情熱의奏鳴曲、어느女子의一生、靑春의뿔바、片道鑑札、뜨子들、나의바다、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當る十六日特別大公開 大人四十錢學生卅錢小人廿錢（階下席）
第一回 午前十一時 第二回 同 午後一時 第三回 同 六時四十分
新興キネマ東京大泉超特作 雜誌婦人倶樂部連載 原作 吉屋信子女史 脚色 陶山密 監督 田中重雄
續女の友情 愛と嵐風雨篇
龍岡楓=伏見信子 村瀨淑子=霧立のぼる 堀初江=御影公子
廿世紀フオツクス超特作日本版 監督ダヴイツド・バトラー
テムプルの輝く瞳 シヤーレイ・テムプル主演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超特作 雜誌少年倶樂部連載 原作 高垣眸 監督 渡邊新太郞
快傑黑頭巾 大谷日出夫一人二役主演
永樂町 中央館 本局三三二番
七月十六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유나이데드社超特作全發聲映畵 日本版 豪華版 콘고部隊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 戀愛劇 芝生의決勝 監督…로렌스·스카외부 主演…잘에트로스、시카름氏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大活劇 俺の鐵拳制裁 ハヤブサヒデト監督主演!
黑人歌手 폴로부손大力演 레스링방크스 나니
寒浦桃花町 電龍山三三番 桃花劇場

半年間의小作爭議 昨年一年分을凌駕

慶南道內의七月十五日現在 二千二百餘件을突破

【釜山】 매년봄철로부터 여름철까지에 일반농민의 생도를 위협하는소작쟁의(小作爭議)가 속출하야서 평온한농촌에 일대살풍경을 이루고잇는데 경상남도내의 올봄정월부터 칠월십오일까지의 소작쟁의의건수는 [illegible] 이천이백여건을 돌파하야 작년일개년간 발생건수와 동수이라하며 쟁의발생원인은 대개가 지주들의무리한 소작료인상과 소작권박탈에의한것이라한다 그리고 그 발생건수중 당사자간에서 해결한것이 약이할인 사백사십여건 소작쟁의조정위원회(小作爭議調停委員會)에서 해결한것이 약삼할인 육백륙십여건 정식재판한것이 약삼할인 륙백륙십여건미해결된것이 이할인사백사십여건 등이며 각군별발생건수는 다음과갓다

東萊	一〇七	金海	一六六				
梁山	六二	蔚山	五八	晋州	一九六	山淸	二〇三
密陽	一〇七	昌原	一九八	河東	一〇四	陜川	一七九
統營	五三	泗川	六三	居昌	二七〇	固城	一一四
咸安	一六八	宜寧	一一八	咸陽	五九	南海	三六

集團部落을造成 馬賊出沒防止劃策

遼河附近移住同胞의困況

【營口】 최근당국의 발표에의하면 성하(?)근인이때에 출몰하는 마적을경계로 근절하기위하여 료하부근(遼河附近)에산재한 조선인납 만여가옥을 집단부락으로 이주시킨다는데 만일당국의 명령까지 이주하지안코 명령을 복종하지안는자의 가옥은 전부 불을노아 버린다하야 서로만(西老滿)에거주하는 사십구호와 마가당(馬家塘)에 거주하는 십여호와 아희가당(姬家塘)에 거주하는 아홉호의 우리형제들은 방금제초기에 분망함을 불고하고 부근집단부락으로 이주하는중이라하며 료하류역에 산재한우리형제들은 전긍긍하는 생활을 계속하지안으면 아니되겟다 고한다 주하여야되겟다고한다

正當한米穀商人을 密輸者라고亂刺

現物까지强制押收를强要

太平村移住同胞逢變

【新義州】 만주국세관리(滿洲國稅關吏)의 횡포한 비인간적취체에 히생자를 속출하야 비난의 적이되여 잇슴은 매일마다지 상에 보도되는바이니와 수일전 세관리 여덜명이 선량한 미곡상인을 습격하야 강도단의 행세를 한사건이 발생하얏다

의주군위화면상단동(義州郡威化面上端洞) 대안 태평촌(太平村)이라는 곳에는 조선인 이주민시신이호가 거주하는데 지난칠일 만주국세관리 여덜명이 개세파ー는쌀을띄리고 이주민이 사는부락에 차저와 그곳에서 쌀장사를하는 홍춘경(洪春慶)(?)의 집을습격하야 창고(倉庫)에는 '쌀'을 밀수출로적을이라하야 창고에 든 '쌀'을 마차로 운반하려는차에 마침 주인이 들아와 운반하지못하게 하엿든바 세관리들이 이것을 밀수출입으로압수한다함에 거의하엿든바 세관리의마음대로한다하여 편리에게 파한한다고 여러가지로 구정을하는 주인들에게 겨를 시겨 수차에 교상(咬傷)을입히고 계속하야 단도(短刀)로 찔러 수명의 중상(重傷)자를 내는등의 폭행을 감행하얏다

南水驛設置運動

代表上京陳情

【雄基】 날로발전하야가는 웅기의 문구(門口)인수항에 작년부터 인근철로를가설하게되자는 남수항일대의 유일한 구일도회(?)의원(?)면민(?)(李成玉)(?)(?)과면장국지방면의 대표 (?)씨의 양군(?)씨등은 양군측을 위하야 서수라(西水羅)지방 경찰부에 대표(?)로 상경하고 (?)(?)의 면민들 정수백명의의한 진정서를가지고 철도국지과 등건

咸北都市團體庭球 第一回對抗戰

【羅津】 라진정구련맹에서는 금번처음으로 함북도시단체 정구대항시합을 개최키로 결정되여 제방준비에 분망중인바 함북에 잇서서는 금번이처음이만치 각도시로부터 다수단체가 참가할모양인바 일반은 당일대성황을 일우리라고 기대하며 저반가정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時日 八月二日

場所 羅津庭球コート

申込場所 羅津庭球聯盟

會費 三組一團體(學生除外)

試合方法 神宮律

賞品 優勝團體優勝旗及副賞參加團體全部記念메달進呈

參加料 毎團體貳圓式

主催 羅津庭球聯盟

後援 大阪每日新聞販賣店 朝鮮日報社羅津支局

漁港修築期成

各界人士網羅

【端川】 단천군내 축항문제는다년간현안으로 잇섯든바 금번단풍선부설(端豐線敷設)을 계기로 어항의실현을 보기위하야 본월십사일 단천군청회의실(端川郡廳會議室)에서 복귀, 파도, 리중(福貴, 波道, 利中) 삼개면장의 주최로 어항수축기성회(漁港修築期成會)를 관계면민 각관공서장과 지방 유력자다수 립회하에 개최하얏는바 의장김홍현(金弘賢)씨 사회로 회중을등과하고 의원을선거한후 위선추한후

元山의急造飲料井 殆半은不適飲料

總檢査百廿處中六十四가落第

府民保健衛生上問題

【元山】 수도시설의 불비와 급수인구의 대격증으로 제한급수를 하고잇는 원산의 이곳저곳에는 비롯은 우물을 다시개수하는일방 간단한 음료수로 원산시내에 다수신설하얏는데 지금원산시내에 설치된 우물이 약이백개가량인바 이러한 우물이 결과 원산서(元山署)에서는 시급히 이우물의 수질을 검사함을 요할듯기고 도위생과에 의습차의 파견을 요망하얏던바 며칠전 그조사가 끗낫는데 그결과에의하면 총검사수 일백이십개중 음료수에 적당 한것은 팔십오개ㆍ마개 업스며 그중에도 제일 적당 한것이 오십 륙개 비가업다고하는데 이것도 모다 송도원(松濤園)방면의것이라고하니 원산리방면의 조선인은 배부분 불량음료수를 먹고잇는셈으로 부민의생명상에 문제가되여잇다고한다

工費廿一萬圓으로 大公園設置計畫

松島海水浴場을中心으로하야

釜山府에서準備中

【釜山】 부산부에서는 송도해수욕장(松島海水浴場)을 중심으로 그근방에잇는 천마산(天馬山)산록을 포함하야 일대공원을만들려고 연구조사중이던바 요지음 그조사가 완료되엿스므로 지난십칠일 오후세시에 부청회의실에서 비밀간담회를열고 동공원계획내용을 제의하야 마찬일치로결정하얏다는데 이계획은 총공비는 약이십일만원으로 그중원용지(公園用地)매수비, 식수비원동부근도로 수축비 이만원등이고 금번구월중에 착공하리라하는데 동공사가 완료되면 명실공이 조선제일의 해수욕장이요 일반부민의 유일한 휴양지가될터이라하야 만흔기대를 가지고잇다한다

産組荷物車에 學生一名轢死

【通川】 십칠일오후네시반경 통천산업조합화물자동차(通川産組貨物自動車)에 일명의학생이 치여 현장에서즉사하얏다는데 그는 남해유내우리동(有林洞)에 거주하는 유채원(柳彩元(?))의 이남 채호(彩浩)(一二)는 자귀정부근 선수로(鮮水路)에서 해수욕을 동모들과 가리하고 마침산업조합차에 깔하야오는 산업조합화물자동차에 치여 가리(?)의동자와

八月一日을期하야 本報咸興支局主催 赴戰高原을探勝

【咸興】 본보함흥지국에서는 벗버쓴생활에 시달리고잇는 부민들에게 하로의휴양을주기위하야 오는팔월일일을 기하야 의미에서 천하의 명승이라고 하는 부전고원(赴戰高原)과 장진호수(長津水田)을 하로동안에 탐승하고 돌아올 탐승단(探勝團)을 모집하기로 되엿는데 정원(定員)은 이십명이며 회비는 차비선비등을 사원이하고 정식으로 공하고서 오원이며 모집기일은 칠월삼십일까지 되엿는데 하로라도미원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여주기를 바란다

培信學校에悲運

예수교會에서維持經費업서 畢竟廢校를決議

【釜山】 초산예수교회에서는 지난십이일에 제직회를 회집하고 사십여년이나 경영하여오든 배신학교(培信學校)를 폐교하기로 가결되엿다한다 인제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긔학교는 거금삼십여년전에 예수교회유지들이창설하야 이래다수한 인재를 양성하여오든바 근래에는 교회가 미약한과 경비곤난으로 인하야 맥해동안은 오직사회유지의 후원금과 도보조금 등으로 겨우 유지하여왓스나 금번도에 들어서는 중연회까지도 유야무야의 상태가되고보니 종차로는 퇴지지할 가망이 업다하야 교회제직회에서는 장시간 토의한결과 부득이 금번하기를 최종으로 폐교하기를 가결한후 초산 사회각방면에 이취지의 설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엿다는것이다 이에따라 부상하고 가련하게도

南海郵便所內에서 爲替橫領綻露

【南海】 지난칠월일 남해경찰서 사법계에서 위체횡령혐의자 (?) [illegible] 이제웅조 [illegible]과 복구취변원 파성을 혐의한결과 복구체변원을 도오백원 리중(?)금일만원까지수금 당하기로되야 각각부됨을 기달려서 즉시송량지정하기로하고 결의선언으로 폐회하얏다한다

普校學科教授

文盲罪囚에게ー

【咸興】 함흥형무소에서는 칠월일부터 수형재감자중 전혀교육을 밧지못하고잇슴 이십오세이상의 문맹 이십륙명에게 매일아츰아홉시부터 한시간동안보통학교이학년정도의 과목조선어산술등을 가르치고잇다는데 옥내의 교육은 처음이라고 주목된다한다

年形豊登豫想

慶山地方에는

【慶山】 경북경산군 지방에서는 지금때마추워 강우량이풍족하야 수십년래처음의순조로 일반농민은환희하는바 금월칠사일발부터동십오일까지 사십구미리의 풍족한 강우로 전수답까지 전부이앙이 완료되엿다는데 금후는 전후의 여하로 풍등이결정되리라고한다

三基督敎團會서 夏期音樂大會

【安東縣】 안동제일(第一) 중앙(中央) 하화도구(下六道溝)세교회그독청년면려회(基督靑年勉勵會)에서는 중앙, 조선, 동아삼신문지국후원하에서 경성보육합창대(京城保育合唱隊)를 초빙하야 오는 이십일 오후칠시부터안동마전중회당에서 하긔음악대회(夏期音樂大會)를개최하리라고한다

[illegible] 남해우내서 (?)(?)(?)(?)(?)(?) 등과 김문경(金聞慶)등 두명을 검거하야 살금까지 엄중취조중이며 그자세한 내용은알수업스나 그는동(?)(?)에서 남해면서기로 봉직하고잇든 남해면(南海面)(?)(?)(?)씨에게 일금이천원을 소위체로 송금해는데 이돈을 본인이 밧지못하고 우편사무부에는 본인이 차저갓것가터 위조인(僞造印)이찍켜 잇슴으로 그형의자로 전긔두명을 검거하야엄중취조를 하는바 확련한 사실이 판명되엿다하며 이외에도 여죄가잇는듯하야 엄밀한 취조를 계속하고잇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更設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遮湖分局

位置 咸鏡線遮湖驛前

右任分局長 全箕衡

分局長 吳興秀

謹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更設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吉州支局

位置 咸鏡線吉州邑

支局長 全今鎔

楊市支局

位置 龍川郡楊市

右任支局長 鄭壽竹

支局長 李晶祚

羅津支局

位置 咸北羅津邑內

右依願解任 金昌順

支局長 申興熙

石岩支局

位置 京義線石岩驛前

右依願解任

主任 李宰周

安州支局

位置 安州郡邑內

右依願解任 金鍾淑

支局長 金一大

寧野支局

位置 海州郡寧野市

右任支局長 朴基仁

支局長 鄭日和

右解任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更設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進永支局

記者 孔相眞

右解任

兼二浦支局

總務兼記者 金東錫

右新任

安州支局

總務兼記者 鄭鶴洙

右新任

安岳支局

東倉浦分局長 張麟文

右新任

東倉浦分局長 朴錫漢

右新任

鎭海支局

記者 鄭午洙

右依願解任

記者 宋炳出

右新任

楊市支局

記者 李鎭國

右新任

吉州支局

記者 周鎭錫

記者 李鳳鎭

右新任

長淵支局

總務兼記者 曹東鉉

右新任

宜川記者團定總

【宜川】 선천신문기자단(宣川新聞記者團)에서는 지난십오일오후구시에 제삼회정긔총회를 조선신문지국에서 개최하고 의원장림성록(林成祿)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가잇슨후 상무의원 문종선(文鍾善)씨의 작년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가 잇슨후 신임위원을 선정하고 금년도 사업진행에대한 제반중요안건을 토의하고 이어서 다(?)한 마찬회가 잇 슨후 동일시에 원만히 폐회되엿다한다

委員長 金基仙(朝鮮)
書記 元容錫(每申)
會計 金基淵(安東)
委員 文基善(東亞)
同 林成祿(朝中)
同 邊鳳朝(朝新)
同 張信民(朝新)

地方人事

▲趙斗鎭氏(前開城署司法主任)今般平壤署司法主任으로就任

▲李秉烈氏 人事次來訪

婦人公論 八月号

本日發賣

定價五十錢

東京・丸ビル五階 中央公論社發行

特別連載 新戀愛論 杉山平助

アダムス女史の博愛事業……德富蘇峰

時事性總評……杉山平助

女な女の月評……山川菊榮

幸福の手紙……中鳴雄作

詩・朝の印象……三木露風

子に語る 母の讀本……野上彌生子

蟻の母

山路を來る……冠松次郎

呼ぶ小舍……武木吉之助

山上の人……吉田吉之

山の水……吉岡千代

ふるさとの母……長谷川時雨

鄕土を思ひに……今井邦子

若き女性へ……吉江孤雁

★山國の女性……

時代に正しい社會知識と、よき情操を與へるための頁です。

女性に見られないものです。

いまでにある迄ての戀愛論を乘り越え、本當に現代人の心に感ざした戀しき戀愛の道はこれだ！この新鮮の一文こそ、正しく女の手をとつて戀愛の道を教へてくれるものです。若き女性必讀の文字！

結婚する私の懺悔 水久保澄子

★私は何故水久保澄子さんと結婚するか……タンフツヨ

華やかな銀幕生活を捨てゝ異國に嫁ぐに當つて過去の一切を赤裸々に告白する水久保さんの手記。

實話 裏の切告白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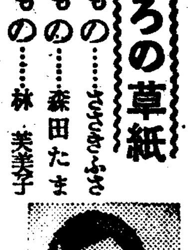
▽姉さん許して……(?)泉葉子

▽友の許婚者を奪ふ……(東京)柴春子

▽妹の愛情を裏切る……(大阪)藤井よし子

▽大恩ある戀人を裏切る……(秋田)宮城道子

批判・悔懺する人々へ……吉田絃二郎



嫁ぎゆく日を迎へて 近藤富志子 元・尾上菊枝

女名代としてその名技をうたはれた元尾上菊枝さんが平凡な結婚生活に何故このやうに憧がれるか？

自殺せる娘に詫びる……鹽田淸猛

平生文相にさゝぐ……金子しげり

★學制改革案是非

石原純・新居格・鹽田均・市川源三・木内キヤウ・別所梅之助・木村秀・堀七藏・久保落一・小林三三・安部磯雄

こころの草紙

美しきもの……ささきふさ

にくきもの……森田たま

心よきもの……林芙美子

逝ける巨人マクシム・ゴリキイ……中條百合子

巨木の倒るゝ如く逝けるゴリキーの生涯と藝術。貧より身を起して世界文壇の王座に登るまで。

歐洲への旅(父鳩子氏との歐洲旅行記。)……鳩山氏令孃 高濱章子

働ける日の喜び(音樂學校をやめて父の思想を生きる)……那雄氏令孃 岡早苗

夏祭

★トーキー名作物語特輯

漠珠の頸飾・ミモザ館・白き處女地・幽靈西へ行く・マヅルカ物語り。

◇大阪祭……上田長太郎

◇紙の戀人(モダン漫才)……小林正

◇俠艶王國(オリムピツクコント)エンタツ・エノスケ

◇ドンペラスポーツ界異聞(連載漫畫)アツポナン博士

◇結婚はしたけれど……麻生豊

狂女高島愛子の半生 鐘田研一

女優、外交官夫人、求道者を經て遂に狂女となる迄の奇しき半生は人生の悲しさを沁々と思はせる

この他婦人公論八月號は素晴しい記事で一杯です。賣切れぬうち今すぐ書店へ

夜店そゞろあるき……横山リユウ一 サトウ・ハチロー

二・二六事件の判決……陸軍省發表

婦人病ひとり診斷手當……醫學博士 竹內茂代

婦人の幸福のために竹内女史が書き下された婦人病一切の知識、ひとり診斷と手當、女性必讀の文字です。

流行性腦炎體驗記

(これから流行る怖ろしい病魔から逃れるために)……松島君江

流行性腦膜炎について……醫博 高木逸磨

絶對に痕のつかない皮下種痘……矢追秀武

特輯 夏のお料理

夏の料理 物菜

▽野菜料理……德見秀子

▽和風魚料理……赤堀旺宏

▽洋風料理……田中德三郎

▽豆腐料理……井舟靜水

夏やせをふせいで下さい。夏はとかく食慾がおとろへる、そしてこれが怖ろしい病魔のつけいるところです。おいしい涼やしい夏のお料理の特輯を貴女の御一家の健康と幸福のためにお贈りいたします。

▽ビールとお酒の肴……高橋虎松

▽風味のよい家庭漬物……本山荻舟

▽お子樣向の一品料理……後藤澄子

▽手輕に出來るおやつ……中曾根梅子

▽涼しい夏ののみもの……齋藤つた

▽お魚の拵へ方……赤堀旺宏

▽野菜の切り方……秋穗敬子

何故？どうして？ 家庭自然科學知識特輯

▽何故花は匂ふか？……理學博士 牧野富太郎

▽何故麒麟の頸は長いか？……理學博士 岡田彌一郎

▽何故鳥は卵から生れるか？……公爵 鷹司信輔

▽何故魚は水中で生きてゐるか？……理學博士 田中茂穗

▽何故蟬はなくか？……理學博士 松村松年

▽何故人は皆異ふ顏をしてゐるか？……文學博士 鳥居龍藏

▽何故人間は死ぬのか？……醫學博士 永井潜

▽何故地球は圓いか？……理學博士 松澤武雄

▽何故太陽はまぶしいか？……編輯部

▽何故星はまばたくか？……編輯部

▽何故風は吹くか？……編輯部

女は男に較べておくれてゐると云はれてゐる。何故か？それは女性が凡ゆる正しい知識から目かくしされてゐるからです。女性の正しい向上と幸福を希ひ努力して來た婦人公論は敢然この特輯を發表します。夏の暑さに小さい所々に解釋一つづゝ話して下さることは如何に、楽しく、また正しく日本の家庭を伸ばしてゆくことでせう。

★好評の小說欄★

★落葉日記……岸田國士

お孃さん……吉屋信子

女の日記……林芙美子

桃子の貞操……宇野千代

男の一生……松本泰

★大阪……藤澤桓夫

面白い小說、しかもたゞ面白いだけに止まらず、藝術の香り高い小說欄は本誌の大きい誇りです。本誌なればこそ見られる傑作小說。

特別讀切小說 春 小堀杏奴 深澤紅子畫

「父鷗外の思ひ出」によつて洛陽の紙價を高からしめた女史の香り高き名作讀切小說。平凡な家庭生活に材をとつて素晴しい

正しい結婚生活

人間として誰しも通らなければならない關門なのに、結婚には何と多くの悲劇があるのか？夫婦生活について正しい知識さへあればこれは避けられることなのだ。

医学博士 正木不如丘

農林產物處理의 合理化案內容

販賣機關을統制指導하여가지고

農村自主的立場擁護

都市經濟의侵蝕으로 大變에잇서서 被害하여가는 農村의 經濟的實力을 培養하는 一方途로는 農村產物의 處理方法을 合理化하야 農村經濟의 自主的立場을擁護한다는것은 現在朝鮮農村의緊急事가 되여잇다 總督府當局에서는 產業調査委員會에 그具體案을 提示하야 漸進的成果를엇고저하는데 그前에 農村에서도 自由하야 그方途를 講究하는 氣色이 濃厚하여가고잇서 同委員會의 成案前에라도 部分的이나마 各關係를 通하야 事業의 達成을助力케될 모양이다 그런데 農林當局의 農林產物處理方法에對한 合理化의 方針은 大略이다음과갓다

1、產業組合、同業組合、殖產契、出荷組合等販賣機關의 設立普及을 圖하며

2、販賣斡旋機關을 統合하야販賣機關과의 連繫를 圖하는同時에

3、販賣機關及 販賣斡旋機關의 機能을가진機關을 中央及地方에設置하고 旣設團體와의 連絡方法을改善하며

4、販賣、加工、貯藏、運輸方法及 資金融通方法의 改善을圖하며

5、販賣와그斡旋에關한 設備及事業에對하야 助成方法을 講究할必要가잇는것이다

農林省無意思로 百萬石拂下不能?

某處到着의東京電

農林省에서는 百萬石의 古米拂下를 한다고 傳하는바 十八日東京加賀年之吉氏로부터 某處에入電된바에依하면 滿見米穀局長은 다음과가티 說明하엿다고 「滿見米穀局長은 同氏에對하야 百萬石拂下의 意思가 업다」고言明하엿다

貸出增加 預金減少

七月中京城組銀

七月十五日現在 京城組合銀行預金貸出狀況은 預金一億四千五十萬一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三百十七萬圓減少、前年同期에比하야 七百七十二萬六千圓의增加 貸出은 一億六千二百三十二萬九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三百二十一萬六千圓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千四百六十六萬五千圓이 各增加이라고한다

東亞勸業會收

交涉進行의停頓

鮮滿拓殖社設立의 前提가되는 東[illegible]

東亞買收除外說

別項『東亞勸業買收』에關하야 總督府關係者中에는 此際『鮮滿開拓』에對하야 東亞勸業을 除外하자는意見도 有力한 現論이잇다 이것은 東亞勸業은 總督府의移民事業代行에依하야自然消滅을免할[illegible]

慶北產繭品質

近年向上이顯著

近來以下 朝鮮의蠶業은 優良蠶種의 普及과 上簇改良等、養蠶技術의向上으로 繭質이顯著히向上되여오는데 이것을檢査成績으로보면 다음과가티 慶北의今年 春繭의精算結果은 다음과가다 慶北의 繭檢定六百四十件에對하야 精算結果를 調査하면

一匁以下	三、一%
一匁ー一二匁	四、七%
一二匁ー一三匁	三七、五%
一三匁ー一四匁	四〇、六%
一四匁ー一五匁	一一、〇
一五匁以上	三、一

即絲量十二匁以上十四匁가 全體의 七十八%를 占하야 繭質의 向上은 注目되다고 한다

船會社新團體는 一交涉團體本位

풀ー計算은안한다고

朝鮮米新輸送團體의 結成에對하야는 二十二日 大阪에서 關係八社가 協議하고 곳組織키로된바 新團體는 풀計算을 안하고交涉團體로 存置할方針으로 代表會社에大阪商船으로하고 今後의 朝鮮米運賃協定에 잇서서는 關係八社의 意思를代表하야 交涉케될터이므로 新團體結成과同時에 各社自由契約形態는 다시鮮航同盟會時代의 一契約으로 復歸케될것이다 그러고 新團體의 名稱에對하야는 二十二日의 協議會에서 決定될터이라고 한다

春繭出廻遲延

平北과咸北에서

朝鮮內 春繭의出廻는 京畿以內의 全部가 完了되고 咸南、江原、黃海、平南의四道는 八割及九割의出廻가 되바 平北은아즉 六割의出廻로 咸北은 二三日前부터 出廻한程度로 例年에比較하면 國境地方은 約十日間 늣는데 各地가 모두 今月中에는 끗날모양이라고 한다

生絲直輸出中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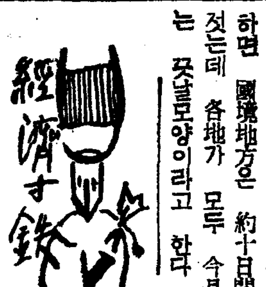
積立金免除를要求

◇…製絲協會의態度

朝鮮產輸出生絲의 釜山直輸出問題에對하야는 製絲協會內에서도 異論이잇슴으로 結局日本蠶絲中央會에對하야 生絲積償法에基한 積立金(一俵에七圓)의免除를要求하고 圓滿히 解決이困難할境遇에는 다시對策을 協議키로되엇다 釜山直輸出을 中止하고 積立金免除를 要求키에至한理由는 生絲의 國際的見地에서 直輸는 不穩當하다는소리가 官民間에 놉흔것과 積立金을一俵에七圓支拂할 朝鮮本社製絲業者는 法域을相異히한다는 理由임에 同法의適用과 政府의保護를 受하지안혓던 것을理由로 免除運動을 起키에 至한것이라고한다

京春鐵道新陣容

京春鐵道會社에서는 二十日午前十時부터 發起人會를 열고 午前十一時부터 創立總會를 열리인데 內定한新陣容의人物은 다음과갓다 ▲取締役會長 牟島省三 ▲常務取締役 鱸川濟 ▲取締役支配人 伊藤旺



經濟寸鐵

○朝鮮米 輸送 船會社는 新團體組織 交涉團體로 存置하리라고

○일홈만 박구어진『鮮航同盟會』와 實質로는 달으것 업서

○殖產局內에 產業統制係를 新設하리라고

○統制强化는 本곳으로 늘어가는모양 統制의 功罪를 注視할일

經濟의消息

○京春重役菊地監事兼務=京春鐵道에 드러갈 殖銀代表重役은 豐川淸吉氏가 總出키로 한바 다시 平取締役으로 決定事 菊地一德氏가 兼務키로되엇다고

○朝石精製工場工事急行=朝鮮石油元山工場은 目下精製工場의 工事를 맹리하는데 下旬부터 二十日까지 完了하고 試驗[illegible]

重要商品界事情

人絹非加盟 聯合會加盟

畢竟紛爭이解決

【東京電話同盟】非加盟의昭和人絹、大陽商인의兩會社는 商工省當局의 斡旋이 奏効하야 聯合會에 加盟키로 決定하엿다 그래서 紛爭도 解決케되엇다고한다

綿絲人絹格差

一部變更을決定

【東京電話同盟】東京米商取引所 杉之森市場에서는 格付委員會를 열고 綿絲와 人絹의 受渡引九月限受渡에 適用할銘柄品과 標準品과의 格差를 審査한結果 人絹은 八月限과가티 全部대로두고 綿絲는 다음과가티 一部變更키로 決定하엿다

▲銘柄別	綿絲	지스絲
東洋紡金魚		格下二圓
鐘華紡金鳥		格下二圓
和泉紡		格下二圓
和泉製絲白魚		格下五圓
明止紡三玉		格下四圓
辻紡赤龍		格下大圓
日高紡雙龍		格下八圓
兩川新羽	格下二圓	

鐵道貨物輸送

目下計畫樹立

鐵道局 七月下旬의 出貨豫想은 中旬에 南鮮一帶는 天候不良이엇스나 中部以北은 旱魃이엇스므로 穀物、木材、石炭、鑛石等의出貨는 堅調로 一部旱魃地帶를 除外하고 天候[illegible] 旺盛하엿스나 下旬은 全鮮的으[illegible]

取引所改造!

會員組織化問題

모든方面에統制를强化할 形勢下에잇서 懸案이取引所制度改善問題는 理想論이라하지만 會員組織化에進行잇는것이 否定할수업[illegible]

株式

東新嫌氣 低落

商況(十八日)

半日立會인今前場은 取引所會員組織問題再燃으로 東新에嫌氣賣物이나와 百二十一圓九十錢에까지떠러지고 二圓二十錢大引 其他는朝新三十二圓三十錢、鐘新百五十八圓六十錢、大新七十三圓六十錢、日產七十六圓三十錢 北紙二十四圓五十錢에 各少落大引되고 朝石十九圓五十錢이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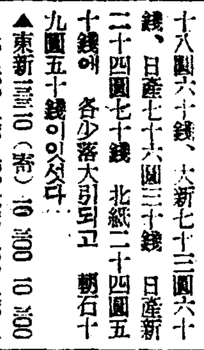
▲東新 [illegible]

▲後場은土曜로例休

軍需株加一棒

大資本巨利獨占

軍需工業株는 業觀一途이엇슨데 政府의方針은 軍需工業會社의 配當을 制限하고 超過利益金은 國家에上納케하리라하야 旺盛한軍需株買氣를 一轉할 모양이다



株

…戒嚴令이 撤廢되리라고 하는소리가 나오니 戒嚴令이撤廢되니까 低落 ▲今朝東京東新은 一圓三十錢低落으로百三十二圓低價大引은 取引所制度改善 會員組織問題再燃때문이라고▲이번은東新이百二十六圓八十錢에서 四圓八十錢押 ▲百三十一、二圓이上下大分鈍點이라고 識人이무엇을▲大引平凡률상것이냐? 財政、軍費의 調停으로因한 內閣危機와統制、增稅률팔것이냐?▲이러케도보이고 저러케도 보이는곳에『마바라』자부쓰기에꼭알마진市場

米

…中部朝鮮은 一昨夜부터 降雨를비롯하야 昨夜에도 降雨가잇섯다 그러나 아즉도 降雨量은 不足▲그러치마는朝鮮은 雨期에 入한饑이잇지아니하고 早害와 水害나 도업슬는지 몰으지▲二十一日米穀統制委員會에서 決定될 政府米拂下問題가 注目꺼리인데 果然百萬石程度의 買替를하기도 容易치안흘일▲政府米의拂下가업다할지라도 民間의在米로써 足히食糧問題는 解決할수잇거든 政府米拂下까지 [illegible]

天災의本格戰

去益波瀾重疊

昨朝의 形勢는 阪地三十二圓臺 當地三十一圓臺를 割破할듯하엿스나 軟派의 後期와如하지못하고 因而下遊狀態를 呈하더니今朝에入하야는 東阪兩地의反撥과共히 三十一圓二十錢臺로反騰하엿다 要하면 昨前場의 反落은 日本內地의 天候良好와 朝鮮의雨天 即 理想的順調가잇슴을 機로한것인데 今前場의 反撥은 日本內地의 天候가依然不良함을 强材視함으로써인듯하다 實로 太平洋岸의 晴天을 除한外에는 大槪全國的으로 曇天이어서 九州東部에는雷雨 裏日本에는 驟雨가잇서서 土用에 臨迫한今日의 不安을與하며 朝鮮은 雨期에入한感이 업지아니하야早地中部도 繼續曇天으로 時時降雨기잇슨즉 朝鮮만은 樂觀이라할수잇다 그러나 日本內地의天候가마치何如할지此가 注目꺼리인데 압흐로市勢는 天災期의本[illegible]

戾賣가得意?

反撥은一時的

今回의反落은 土用에 接近한日本內地의天候回復과旱地인 朝鮮中部의 好雨又는 政府米拂下에對한二十一日 米穀委員會開催等明材料 懸給한것으로 此行勢를 一巡한後부터는 反히底堅味를添하야 二十丁臺의 呉勝을 告하엿에至하엿다 압흐로天災期가 擴在하야 어떠한現象을招來할지몰으는 今日에잇서서 安心賣하다는것도時期尙早의嫌이엇지아니하나 그러[illegible]

後場伸張

後場은 阪地六節 三十四錢으로 九節二十四錢까지 反落하엿다가 二十五錢에 止하엿고 當地는 五節二十五錢으로 十九錢까지 少落하엿다가 二十二錢에 止하엿다 本朝賣이다가 四節二十三錢으로 二十五錢에 三十錢高로시작한後 三十一圓二十九錢에 押하고 二十錢에止하엿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期米强調

當中肩替成立

【大阪電話】買方藤田과 田中貢眼二萬五千石 當中에서 四萬五千石의肩代가 成立되엇다 價格은昨後止의當三三圓〇六錢 中三[illegible]이로써 藤田의買玉은 一掃되엇다 買方=中谷、東京側地場軟派 賣方=地場、來客、汐數、地場强氣

各地正米

京城强含

大口取引은業然업스나 期米少强으로 唱은十錢高인九仁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二十六圓五十錢

仁川少强

期米頑强으로人氣만 多少少康回復되어 十錢高唱이나 正米事情에는 別로 變함이업고 閑散裡에 終始하야 丸仁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十錢

釜山伸惱

當用側의買氣散見되나 依然間題가되고 定期反撥을 不拘코 市況은 伸惱하야 角ㄱ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十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川錢

大邱不動

實行停頓狀態로 一般氣迷가 深甚한場面은 거의 不賣不買의 平凡狀態이엇다 角ㄱ三等三十圓六十錢 四等三十圓 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五錢

群山同調

極度로 躊躇되고 市況은 大槩散漫에 推移되어 定期强調에도 不拘코 保合인 裴ㄱ三等三十圓二十錢・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木浦底固

賣買閑散이나마 產地持米側이 低價로는 賣치안흠으로 市況은 低固이오 期米高와相俟하야 十錢高唱인 丸木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期米 頭重 少戾이나

前場少高

昨後場 阪地三十三圓二十錢止와共히 三十一圓十錢에寄를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三十一錢인 十一丁突高를 부하고 三十一圓二十錢인 十丁高로 寄를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七〇

▲二回四分利 一〇一、七〇

▲佛貨四分 一九九、〇〇

▲甲五分利一〇一、五二 ▲二二年一〇一、五二 ▲第三五分 八年一〇一、五二 ▲一回四分一〇一、五二 ▲二回四分一〇一、五二 佛貨四分一九九、五〇 ▲米貨六分半一〇九、九〇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週半日이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東洋製紙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朝鮮防寒 [illegible] ▲秋田木材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라사工業 [illegible]

今日財界(十八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一三〇	一〇高
大阪期米 先限	三三二五	五高
朝鮮三等米一石	三一三〇	一〇高
正租(仁川)一等一斤價	三	不變

◆市中金銀價

	一匁買	一匁賣
金	三圓七十錢	三圓九十錢
銀	九錢〇厘	十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一〇低
東新	[illegible]	一〇低
日產	[illegible]	三〇低

◆商品(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三〇低
大阪棉花	[illegible]	一〇低
大阪人絹	[illegible]	一〇高
大阪砂糖	[illegible]	
ゴム FAQ	[illegible]	三厘低

"上半期貸借對照表"

各銀行總會附議할內容

各銀行에서는 一齊히今上半期末로 定期株主總會를열어가지고 이곳에 附議決定케될 貸借對照表의 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갓다고한다

▲東一銀行

七月二十日午前十時에 同行內에서第六十回定期總會를열고다음과가튼 貸借對照表를 附議決定할터인데 株主配當은年三分

資產 / 負債 各項目: 現金及預金、現金、預金、振替貯金、(朝鮮銀行이指定한銀行에預金)、金銀地金、有價證券勘定、國債、(其中地方債)、株式、割引手形勘定、商業手形、荷付爲替手形、貸付金勘定、證書貸付、手形貸付、當座貸越、他店貸、他店勘定、保證勘定、支拂承諾見返、本支店未達勘定、營業用動產不動產勘定、營業用土地、營業用建物、營業用什器、所有動產不動產、假勘定、株主勘定、拂込未濟資本金、合計、預金勘定、當座預金、特別當座預金、通知預金、定期預金、別段預金、借用金勘定、再割引手形 — [illegible]

▲商業銀行

七月廿五日午前十一時에 同行에서 定期總會를열고 다음과가튼對照表를 附議決定할터인데 株主配當은年三分이라고

[illegible]

▲漢城銀行

七月廿三日午前十時 同行에서 定期總會를열고 다음의貸借對照表를 附議決定할터인데 株主配當은 年六分

[illegible]

▲海東銀行

今月廿五日午後一時 同行에서 定期總會를열고 다음의貸借對照表를 附議決定할터인데 株主配當은 年四分이라고

[illegible]

康益商店 米 株 仁川 京城 益 全益証券部

土金 石金 分析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一六番 振替京城一五一四番

金融 (十八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十八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八日)

◆京城綿系布 ◆京城綿布 ◆大阪綿絲 ◆東洋綿布 ◆大阪人絹 ◆大阪砂糖 ◆大阪棉花 ◆各地人絹 ◆日本蠶絲市況 ◆大連特產市況 ◆滿洲商況 ◆海外砂糖 ◆橫濱生絲

[illegible]

株式 (十八日)

◆朝取現株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期米 (十八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値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況(單位錢)

[illegible]